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www.seoulnurse.or.kr

2023. 08 SUMMER

특별기고

간호법, 끝나지 않은 도전

지상강의

간호업무와 챗GPT

최신의료동향

수술방법의 진화: 로봇을 이용한 수술





2023. 08. SUMMER 서울특별시간호사회 www.seoulnurse.or.kr

발 발 편 담 편 위	행 집 위 원	행 인 인 당 장 원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김윤숙
			이주연
			김윤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경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김남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숙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최인숙 (경희의료원)
			한세영 (서울대학교병원)

서울간호 2023년 여름호 통권 제41호

발 행 일 2023. 8
 발 행 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서울 구로구 공원로 6가길 26
 T. 02-853-5497 F. 02-859-0146
 E-mail sna@seoulnurse.or.kr
 홈페이지 www.seoulnurse.or.kr

디자인 · 인쇄 홍진피앤피 T.02-2275-9875



>> CONTENTS

> Column	권두언	“함께 해야 빛나는 길: 간호사의 미래와 변화를 향한 여정”	_ 02
> Feature	특별기고	간호법, 끝나지 않은 도전	_ 04
	지상강의	간호업무와 챗GPT	_ 08
	최신의료동향	수술방법의 진화: 로봇을 이용한 수술	_ 14
> Cover Story	주제가 있는 이야기		_ 20
> 회원들의 이야기	에세이		_ 28
	즐거운 일터		_ 53
	포토에세이		_ 60
> SNA News	본회소식		_ 62

“함께 해야 빛나는 길: 간호사의 미래와 변화를 향한 여정”



조윤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 조윤수입니다.

가슴 먹먹함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3년여라는 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욕구도 희생했고 가족을 돌보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 뒤로 하고 험난한 현장을 사명감으로 누볐습니다. 또한 우리는 2년여라는 긴 시간, 간호법 제정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와 열정을 갈아 우리의 미래를 담아내고자 했기에 그저 애썼다는 말로는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게 뭐야, 별거 없잖아...’, 하지만 우리는 한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고통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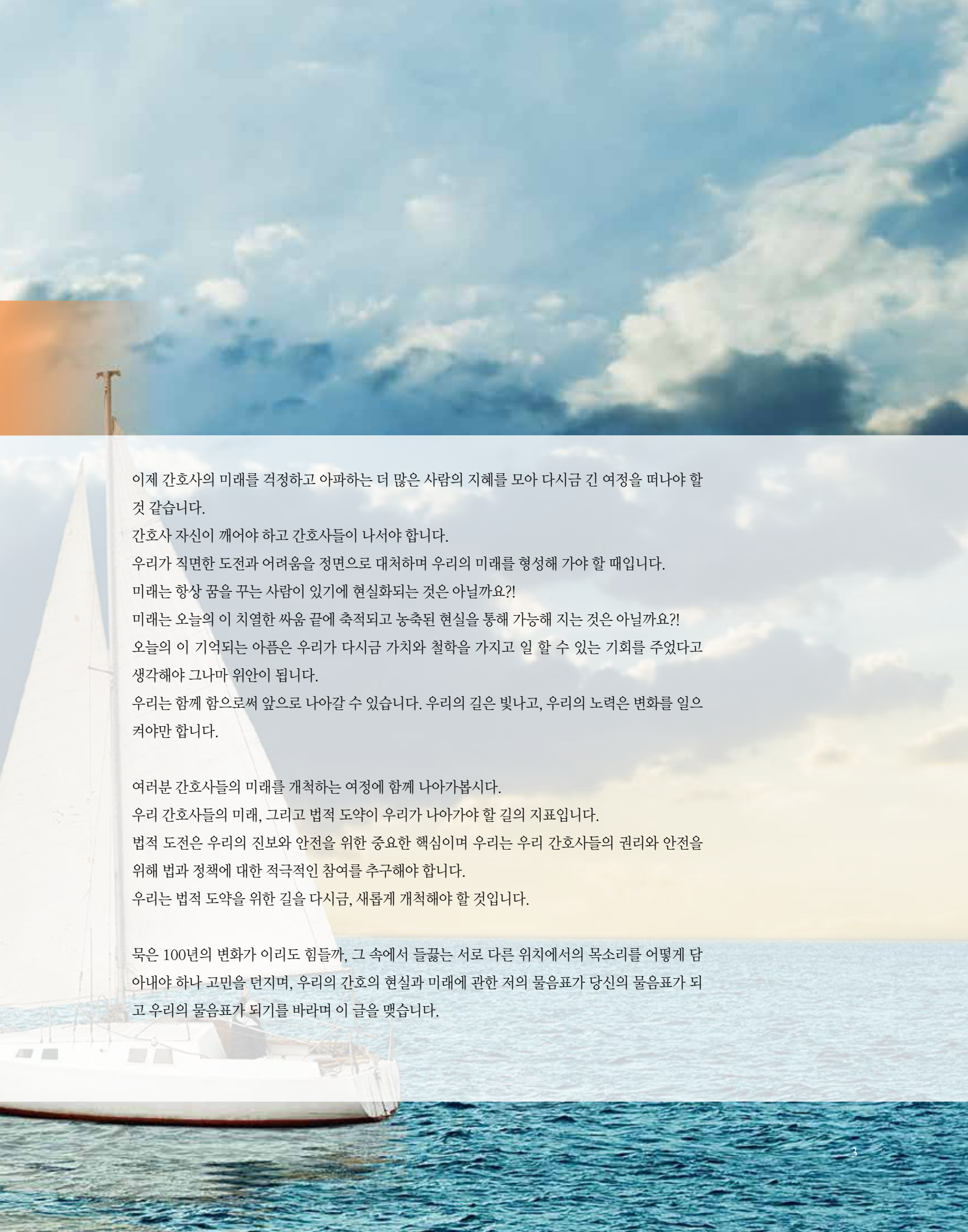
‘여기까지 온 것도 큰 성과야...’, 하지만 처절하게 대거리하며 우리가 한목소리로 함께 하길 바라는 젊은 간호사들에게 그저 주저앉는 모습으로 보일까 속상해지는 지금입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 정쟁의 휘말림, 지역 간의 밥그릇 싸움,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득세력, 간호의 저평가, 간호사 간 역할갈등, 간호사의 모호한 역할 구분, 역할갈등 시 그때 그때의 유권해석으로 넘어간 우리의 문제해결 행태’ 등.

우리는 이를 통해 바꾸어야 할 것이 많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이뤄졌다 보다는 우리의 처절한 고민과 소리가 적었던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보건인력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가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 달랐고 맺가는 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아파하는지도 모릅니다.

A full-page background image featuring a white sailboat on a blue sea under a vast blue sky with scattered white clouds. The sailboat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with its mast and sails visible. The horizon line is roughly in the middle of the image.

이제 간호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아파하는 더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 다시금 긴 여정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 자신이 깨어야 하고 간호사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을 정면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미래를 형성해 가야 할 때입니다.

미래는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이 있기에 현실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미래는 오늘의 이 치열한 싸움 끝에 축적되고 농축된 현실을 통해 가능해 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이 기억되는 아픔은 우리가 다시금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해야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빛나고, 우리의 노력은 변화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간호사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여정에 함께 나아가봅시다.

우리 간호사들의 미래, 그리고 법적 도약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의 지표입니다.

법적 도전은 우리의 진보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핵심이며 우리는 우리 간호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법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적 도약을 위한 길을 다시금, 새롭게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묵은 100년의 변화가 이리도 힘들까, 그 속에서 들끓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야 하나 고민을 던지며, 우리의 간호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저의 물음표가 당신의 물음표가 되고 우리의 물음표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습니다.

간호법, 끝나지 않은 도전

최연숙 제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2023년 5월 30일, 간호계 100년 숙원이자 새로운 간호 100년의 초석이 될 간호법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재의결 표결에서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끝내 부결됐다. 간호법 발의 후 2년이 넘도록 수많은 간호사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허탈함과 상실감을 감출 수 없다.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매우 송구스럽다.

간호법은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며, 간호업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간호인력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의사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의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로 취지가 잘못 알려지고 보건 의료인 간 갈등으로 번졌다.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로 통과시킨 법을 앞장서 반대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에서 2년간의 법안 심의에 함께 참여하며 대안을 만들어 내었는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 2달 동안 간호법 반대 입장에 동조하는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갈등을 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부의 부처보다는 특정 협회의 대변인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간호법과 같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이중적이고 모순되었다. 의료법과 간호법 모두 법사위 심사 지연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절차를 동일하게 거쳤으며, 의사단체는 두 법 모두 결사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간호법과 달리 의료법에는 재의 건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간호법 재의가 된 날에 살인·성폭행으로 인한 면허 박탈이 과하다는 일부 입장을 수렴해 추후 의료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비판받을 만하다.

여당의 중재 노력도 아쉬움이 남을 만한 면이 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을 때 여당은 서둘러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해당 중재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던 내용이었고, 간호법을 반대하는 직역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간호법의 본래취지를 훼손하는 등 협상이 불가능

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중재안의 내용은 크게 4개였는데,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법의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는 것인데, 이는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다.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 처우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문화 또는 다양화되는 간호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천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간호와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만 허용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많은 간호사들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학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지역사회 시설 등에 배치되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업무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입법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간호법 제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3만여명의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직업군의 업무도 침해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간호법을 반대했던 측에서는 간호사 ‘단독개원’에 우려를 표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개설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만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 등은 이를 가능하다는 식으로 오해를 유발시켰던 것이다. 간호법의 ‘지역사회’ 문구는 이미 지역사회 각 영역에서 배치되어 일하는 간호사와 그들의 간호돌봄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필요한 것이었다.

넷째,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60여개의 특성화고와 600여개의 간호조무사학원은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양성기관에 따라 1급 간호조무사와 2급 간호조무사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오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배경을 살펴보면, 2012년 평택의 국제대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마련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규칙을 정비하라고 권고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3년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간호조무사를 1급과 2급으로 나누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이 정부안은 규제개혁위원회도 통과되지 않아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그 결과, 2015년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여 현 간호조무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듯 간호조무사의 양성기관과 학력상한에 대한 문제는 간호조무사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간호법이 발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축적되고 많은 노력이 집약되었다. 간호법은 제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되었으며,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약 20년에 걸친 긴 역사를 가진 법안이다. 간호법이 제정되지 못하였지만, 간호법 추진에 기울인 노력은 절대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총선 이전부터 여야 3당이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25일, 약속대로 여야 3당 의원들, 당시 국민의당이었던 본인을 포함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했다.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간호사들의 공헌과 노고를 인정하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약속과 노력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간호법은 국회에서 치열하게 심사됐다. 2021년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의 공청회를 통해 관련 직역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여야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법안이 회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0여 일이 지나도록 심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여야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 무기명투표를 통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이후 2023년 4월 30일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간호계 역사상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간호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가고, 재의결 표결을 거쳐 끝내 부결되었다. 간호법은 멈췄지만, 간호사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대리처방과 수술 등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와 뛰어난 보건의료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불법의료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치가 확립되고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알면서도 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질 수 있도록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의사단체 등 일부 단체도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거짓 선동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을 뒤로 한 직업이기주의에 빠져 의대 증원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비협조적으로 행동하여 국가 필수의료체계를 해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제21대 국회는 아직 1년이나 남아있다. 여야가 합의된다면 언제든지 간호법을 재추진하여 통과시킬 수 있다. 앞으로는 간호법을 재추진하여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개선에 집중할 생각이다. 간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 단순히 의미 있는 도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



최연숙

제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현)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현) 한-키르기스스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현)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이사
 현) 사단법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
 현)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고문
 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전) 재단법인 국민미래연구원 이사
 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전) 대한간호협회 대구광역시병원간호사회 회장

간호업무와 챗GPT

윤기영 미래학자, 디지털전략가,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챗GPT는 거대한 현상이 되었다. 챗GPT는 거대언어모델의 하나다. 거대언어모델이란 규모가 큰 언어인공지능을 뜻 한다. 거대언어모델의 종류는 다양하며, 챗GPT를 뛰어넘는 것도 조만간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 지식 및 노동이 언어로 이루어졌으므로, 챗GPT를 포함한 거대언어모델은 간호업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글에서 간호업무와 챗GPT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글은 세부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챗GPT에 대해 개념과 활용 및 한계에 대해 간략한 소개하고, 두번째로 챗GPT의 상위개념인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이 의료분야에 가져올 미래변화,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챗GPT 등 거대언어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겠다.

챗GPT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면 챗GPT에 대한 소개를 모두 읽을 필요는 없다. 다만 한계는 확인하기를 바란다. 참고로 이 글에서 챗GPT와 거대언어모델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는데, 챗GPT를 사용하는 경우 주로 챗GPT에 대한 것이고, 거대언어모델을 말했다면 챗GPT를 포함한 거대언어모델에 대한 것이다.



챗GPT에 대해 개념, 활용 및 한계

챗GPT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겠다. 기술적인 설명이라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챗GPT는 인공지능개발 조직인 OpenAI가 개발한 거대언어모델 GPT-3.5와 GPT-4의 챗봇이다. 챗봇이란 사람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을 뜻한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어다. 우리말로 하면 생성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다. 생성이란 글, 그림 혹은 소리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뜻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 자연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인공지능,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은 글 등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성 인공지능과 차이가 있다. 사전 학습되었다 함은 중등학교까지 배워서 특정 전공을 추가로 학습할 수 있다는 의미다. GPT에 금융지식, 의료지식 등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응용분야로 확장 가능하다는 의미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 Google이 발표한 인공지능 모델로, 자연어 분야의 인공지능에서 가장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3.5와 4는 버전을 뜻한다. 3.5는 버전 3을 기반으로 일부 수정되었다는 의미다. 버전 3은 매개변수 1,750억개에 달하며, 버전 4는 1조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개변수는 사람의 뇌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시냅스에 대응한다. 인간의 뇌는 대충 100조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다.

OpenAI가 그들의 거대언어모델의 이름을 GPT로 정한 배경에는 GPT가 범용기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범용기술은 영어로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라 한다. 범용기술에는 농업, 야금술, 증기기관, 전기, 내연기관 등이 있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인류가 역사적으로 전환할 수 있던 배경에는 범용기술로 인한 지구 단위의 비약적 생산성 증가가 있다. GPT의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생소하던 GPT에 친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챗GPT가 거대한 현상이 된 이유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인 자연어 처리와 생성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간호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물으니, 전자의료기록 시스템(Electronic Health Record), 임상 결정 지원 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간호계획 및 관리 시스템(Nursing Care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등을 나열하고 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더해준다. 다시 챗GPT에게 상세한 설명과 장점 및 단점을 나열하라고 요청하면 자세한 설명과 여러 개의 장점과 단점, 각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한다. 보고서 작성이나 지식 정리 등에 큰 도움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챗GPT 최신 버전은 PDF 자료를 정리하거나 요약한다. 기존의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와 비교하여 그 품질이 탁월하다. 언어로 수행해야 하는 대부분의 업무나 작업에서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을 읽는 중에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간호계획 및 관리 시스템’의 실체는 불명확하다. 대신 간호진단 시스템이 있다. 영어와 우리말로 ‘간호계획 및 관리

시스템'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없다. 챗GPT가 일종의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를 환각(Hallucination)이라 한다. 환각은 챗GPT만의 문제가 아니며, 생성인공지능의 구조적 문제다. 현재 기술로는 우회할 수 있으나 제거할 수 없다. 지식 그래프라는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하나, 확실하지 않다. 환각의 비율은 일부 의견에 따르면 20%에 달한다. 챗GPT를 포함한 거대언어모델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실은 확인하고, 견해는 참고하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거대언어모델에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한계가 있다. 논리가 약하다. 단순한 논리구조는 잘 정리하나, 가설추리, 복잡한 논리 퀴즈에 취약하다. 이는 문장을 요약하는 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잡한 논리로 구성된 문장을 제대로 요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 제한된 기억력, 편향, 대량의 전력 소비 등 한계가 있다.

거대언어모델이 의료 분야에 가져올 변화

챗GPT가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면, 무대 뒤와 옆에 다수의 거대언어모델이 스포트라이트를 기다리고 있다. 다양한 기관과 국가에서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상당히 성능 좋은 거대언어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었다.

거대언어모델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의 거대언어모델 중 하나인 Med-PaLM 2는 미국의 의사면허시험 문제집으로 시험을 치면 85%를 맞춘다. 참고로 의사면허시험 합격선은 약 60%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거대언어모델이 의료 분야를 전공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엑스레이나 심전도를 해석하지는 못하므로 기껏해야 문진 정도만 가능하다.

거대언어모델은 사람의 말과 글뿐만 아니라 그림과 그래프 해석도 가능한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OpenAI의 GPT-4는 그래프와 그림을 해석할 줄 알며, 구글의 PaLM-E는 시각 정보로 주변상황을 해석할 줄 안다. 메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은 실험실 수준이기는 하나 문자, 소리, 시각 정보와 깊이 정보, 움직임, 온도 감각을 융합적으로 처리 가능하다. 이 인공지능에 FDA 승인을 받은 인공지능을 결합한다면 종합 진단 의료용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것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야 미래예측 사이트인 Medical Futurist를 참고하면 FDA 승인을 받은 인공지능은 2021년 현재 79개에 달한다. 수술과 치료를 인공지능에게 맡기기는 당분간 힘들겠으나, 의료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은 충분히 가능하다.

거대언어모델은 단백질 구조 예측과 DNA 유전체학에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용 거대언어모델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 개발에 대



한 시간 및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바이러스에 대한 해석 및 인류의 유전체 분석에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개인의 유전자를 해석하고 생활습관을 기록하는 실시간 개인 전용 인공지능 의사의 출현은 불가능하지 않다. 예방적 초정밀의료 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언어모델이 성능은 높아지면서도 규모가 작아지고, 반도체의 성능이 개선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체 삽입형 의료 센서의 등장과 인간 유전체에 대한 전반적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

거대언어모델 트렌드는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OpenAI의 대표인 샘올트만(Sam Altman)은 앞으로 규모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올 5월에 발표된 구글의 PaLM-2는 다양한 규모의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도체의 성능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는 이미 개발되었고, 분자나 고분자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분자 반도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체 삽입형 통합 의료 센서는 사용자의 혈류에서 효소까지, 취침 시간에서 신체 활동까지 다양한 신체정보를 측정하고 개인 전용 인공지능 의사에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가 개발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인간의 유전체 정보를 해석하는 속도가 느리긴 하나, 거대언어 모델로 그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의료용 거대언어모델의 성숙으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상당히 연장되는 장생(長生)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다만 인간 수명의 극단적 증가는 정치, 경제 및 사회에 깊은 불확실성(deep uncertainty)을 가져올 것이다.

간호사가 챗GPT 등 거대언어모델을 사용하는 방법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를 챗GPT와 구글의 Bard에게 물었다. 답변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환자 안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 환자 치료 지원, 환자 편의 제공, 환자 교육 제공 등이다. 이들 간호 업무의 이름만 보아도, 인공지능의 지원받을 수는 있겠으나, 완전 자동화 가능한 업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 가능한 부분을 일부라도 들자면, 환자 교육 부분에서 거대언어모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의료용 거대언어모델과 다양한 대화를 통해 치료 전, 치료 중, 퇴원 후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실시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거대언어모델은 특정 유명인의 어투와 목소리를 흉내 낼 수 있어, 환자와의 친밀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간호 업무 전반적으로 보아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옥스포드 마틴스쿨의 프레이(Frey)와 오스본(Osborne)이 2013년 발표한 논문 ‘고용의 미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LPN이나 LVN의 직무 중 5.8%만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가능하고, 간호사인 RN의 직무 0.9%만 자동화 가능하다고 보았다. 프레이 등의 연구가 거대언어모델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 한계가 없지 않으나 참고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한다.

거대언어모델이 간호업무를 자동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업무 수행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서 작성, 번역 및 임상실험 시 통계를 위한 프로그래밍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 방법을 아래 간략하게 정리했다. 다시 강조하건대, 거대언어모델을 사용할 때 ‘사실은 확인하고, 견해는 참고하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보고서 작성에 거대언어모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거대언어모델은 인류가 작성한 다수의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했다. 환각이 문제가 되기는 하나, 인류 전체의 평균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아이작 뉴턴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멀리 보았다’면, 이제 우리 간호사는 ‘인류 집단 지성의 어깨 위에 올라 멀리 넓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챗GPT 등을 활용해야 한다면 정보를 요청할 때 다음의 원칙을 지키면 좋다. 전문가의 입장을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야 하며, 환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등의 요청을 해야 한다. 이번 글을 쓰면서 작성했던 요청 내용을 아래 적었다.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를 나열해 줘. 간호사의 입장에서 서술해줘. MECE 원칙에 따라 나열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서술해줘. 근거가 있으면 이에 대해 적어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보가 없다면 모르겠다고 해줘.

다양한 거대언어모델에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대언어모델이 늘어나겠지만, 현재 쓸 만한 거대언어모델은 챗GPT, Bard, Bing 채팅 정도다. 챗GPT는 내용이 풍부하다는 장점, Bard는 챗GPT와는 다른 시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 Bing 채팅은 실시간 검색을 기반으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거대언어모델의 번역 품질은 매우 아주 무척 굉장히 좋다. 거대언어모델 번역 기능은 맥락에 따라 글을 번역하여,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번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참고로

번역에 특화되어 있는 DeepL이 현재까지는 비교 우위가 있다. 통번역의 자동화는 지식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어학의 중요성에도 전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나 간호 관련 외국어 문헌을 번역할 때 거대언어모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권한다.

통계 프로그램 언어인 R이나 통계 등에 쓸 수 있는 python을 코딩할 때, 챗GPT와 Bard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논리력의 한계로 복잡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코딩작성을 자동화하지 못하나, 샘플 소스를 제공하여 통계 관련 컴퓨터 코딩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간호 임상 연구에 이들을 활용하여 통계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간호업무에서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다양하다. 간호사 모든 분께서 ‘인류의 집단 지성의 어깨 위에 올라 멀리 넓게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윤기영

현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현 에프엔에스컨설팅 미래전략연구소장
미래학자, 디지털전략가
성균관대 박사 수료, KAIST, 경희대 졸업
한겨레 윤기영의 원러심모 연재
뉴노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비즈니스 모델
링, 뉴사피언스 챗GPT 등 공저 및 번역

수술방법의 진화: 로봇을 이용한 수술

송교영 서울성모병원 외과 과장



콘솔박스라는 공간에서 원격조정 _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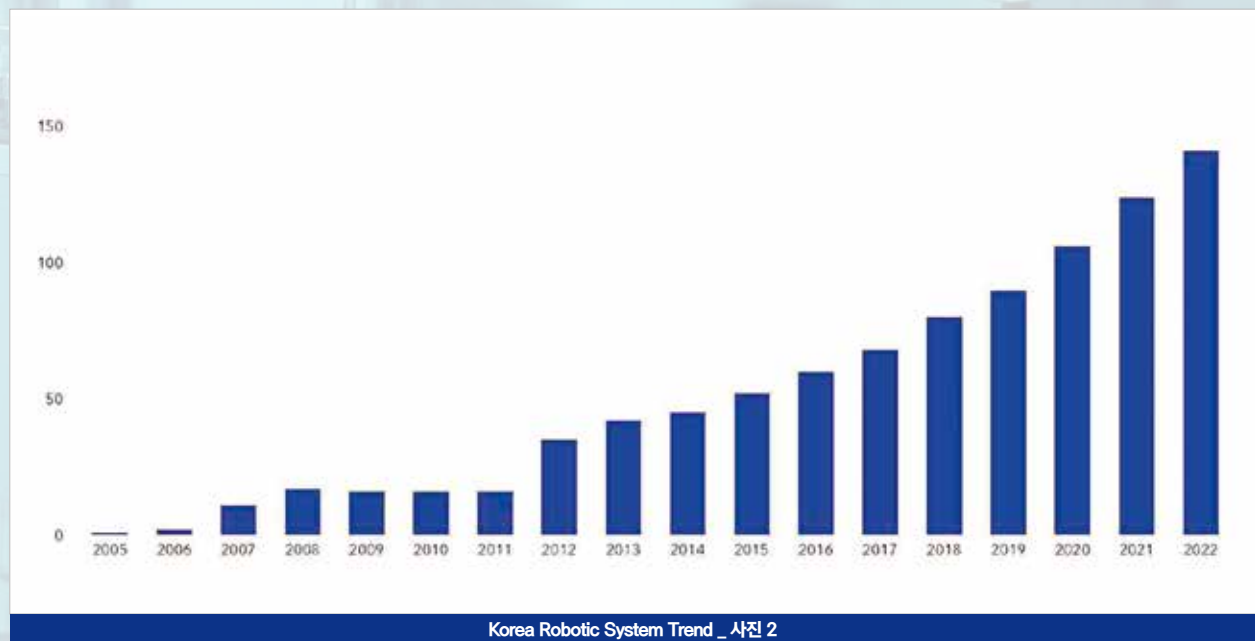
환자에게 로봇수술을 권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보통 로봇이라 하면 주인의 명령을 받아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떠올리게 되며 그래서 로봇이 수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미래를 다루는 영화에서처럼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로봇이 알아서 수술을 해 주는 일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시기에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사무실에서 태블릿 컴퓨터로 원격 수술을 하는 일도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로봇수술은 엄밀히 말하면 로봇이 아니고 로봇수술기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외과의사가 직접 실행하는 컴퓨터수술(computerized surgery)을 말한다. 수술하는 의사는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대와 조금 떨어진 콘솔박스라는 공간에서 원격조종을 하게 되는데(사진 1), 외과의사의 손놀림이 로봇수술기에 전달되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master-slave(주인과 노예)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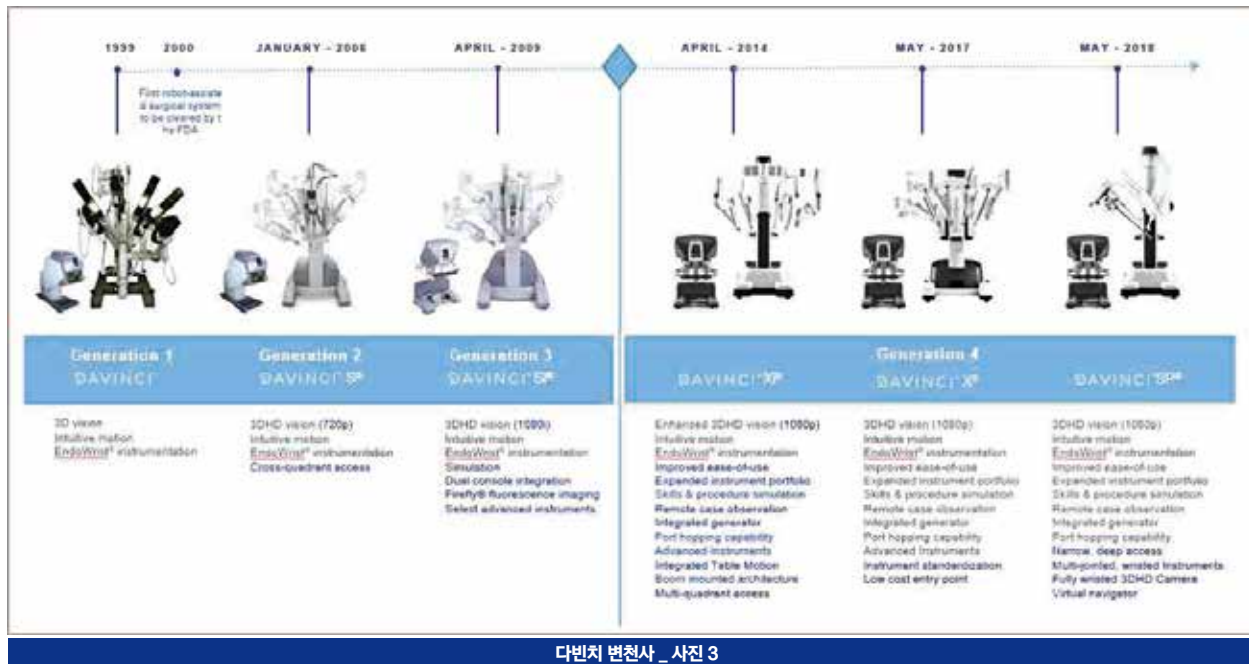
간에서도 수술이 가능하여 서울에 있는 의사가 부산에 있는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원격 수술이 가능한 것이다.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처럼 몇 개의 작은 구멍을 뚫고 카메라와 수술용 기계를 삽입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 복강경 수술은 2차원적인 카메라를 사용하고, 사용되는 기구의 관절 운동이 불가능하여 숙련될 때까지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수술의사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해 로봇수술 장비는 특수한 카메라가 3차원 시야를 제공하여 원근감을 극대화한 입체적인 수술 환경이 제공된다는 점, 수술 기구가 관절 구조로 되어 있어 마치 사람의 손목을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과 함께, 손 떨림 방지 기능 등 여러가지 첨단 기능이 장착된 수술 장비다. 아주 좁은 공간에서 크게 확대된 상태의 수술을 하는 전립선 절제술과 같은 수술에서 활용되었다가 다양한 외과 수술에 사용되었고 점차 위암, 대장암 등 다른 암 수술에도 적용되었다.

로봇수술기는 미국의 인튜이티브 서지컬 이라는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약 8,000대가 도입되어 있고, 국내에도 약 150대가 도입되어 있다 (사진 2).



출처 : 인튜이티브서지컬 코리아



다빈치 변천사 _ 사진 3

출처: 인튜이티브서지컬 코리아

외과의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가 도입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봇수술 장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질환, 그리고 일부 양성질환에 대해 로봇수술을 적용하였지만 국내의 선구자적인 외과의사들에 의해 암 수술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수술방법을 오히려 만들어 내는 신화를 만들었다.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 주요 암에 대한 로봇수술 방법은 국내 외과의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의 외과수술 실력에 가우뚱 했던 인튜이티브 관계자들이 앞 다투어 한국을 찾아 놀라운 발전과 한 단계 높은 성적의 이유를 찾으려 하고 있다.



다빈치 Xi _ 사진 4

출처: 인튜이티브서지컬 코리아

인튜이티브사의 로봇 수술기는 초창기 모델인 다빈치부터 점차 진화하여 지금은 4세대 수술기인 다빈치 Xi 모델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사진 3) 초창기 모델에 비해 높은 해상도와 가벼운 몸체를 자랑하며 더 많은 질환에서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로봇수술기의 최신 경향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8년 출시된 SP 모델이다.(사진 4)

복강경 수술에서 사용되었던 단일공 수술처럼 로봇에서 하나의 구멍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방법인데,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대다수의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고 급격하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로봇수술계의 게임체인저(Gamechanger)로 불리고 있다. 로봇수술의 효용성에 대해 많은 학술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환자가 느끼는 장점으로 빠른 회복속도, 수술 중 적은 출혈량, 그리고 복강경 수술과 같은 기존 수술에 비해

뒤지지 않는 장기 생존률 등을 꼽는다. 특히, SP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의 결과는 하루가 다르게 보고되고 있어 매일 매일이 다른 상황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복강경 수술에 비해 긴 수술시간과 수술비용의 문제이다. 고가의 수술 장비이면서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의사의 준비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고령이나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적용 가능성이나 이득에 대한 논란 등도 해소되어야 할 문제다.

현재의 최소 침습수술의 경향은 점차 복강경 수술에서 로봇수술로 전환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팩트로 여기에 잘 적응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명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감 있는 술기를 시행할 준비를 해야 하며, 기계의 장단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기술과 장비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질병상태, 전신상태, 나이 등을 두루 고려하여 어떤 방법의 수술이 가장 최적일지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되, 로봇수술의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 봐야 한다. 더 많은 질병에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도록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송 교 영

가톨릭의대 졸업
가톨릭의대 석, 박사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
서울성모병원 외과과장,
위암센터장, 로봇수술센터장
한국외과로봇수술학회 회장

Cover Story 주제가 있는 이야기

간호법

- 20 고은희 간호 백만년을 위해
- 21 김진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 22 이경화 반짝반짝 빛났던 나의 간호, 나의 간호는 여기서 '끝'일까? '쉼'일까?
- 26 전해련 이제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때



회원들의 이야기 에세이

- 28 박정현 웰빙의 연속선, 웰다잉을 위한 선한 동행
- 30 안정민 다음에 또 뵙요
- 32 이하은 다양한 환자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 34 이은정 다시 시작하는 20년
- 36 이영섭 “할아버지 잘 지내시나요?”
- 38 이지민 신세계
- 40 정해수 숙련된 간호사 양성일기
- 42 이정은 간호법
- 44 정 현 제주도의 눈물
- 46 신현진 공감과 간호를 제공하는 우리는 모두 숙련된 간호사입니다.
- 47 지 윤 우리의 관심
- 48 조현우 최고의 향암은 약이 아닌 사람들
- 50 최수정 버텨내야만 하는 전쟁, 그 전쟁이 끝날 날을 기다리며...
- 52 홍원기 ‘간호법’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
- 54 김은혜 작은 노력, 큰 결과
- 57 신채린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 우리에게 분명 좋은 일이 생길거야
- 59 황효선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 백만년을 위해

-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

고은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간호의 백년 역사를 맞이하며...

간호사의 백년은 앞으로의 백만년 그 이상의 간호 역사를 위해...

현재의 우리보다, 우리 후배, 더 나은 미래 간호사를 위해...

우리는 현재의 역경을 이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욱더 빛나게, 눈부시게 현재를 살아갈 것이다.

간호는 헌신만이 아닌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그 기본 바탕 위에 환자에 대한, 더 폭 넓게 모든 국민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사는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간호법이 아직도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 생각하는가??

간호사라는 소명의식 아래 현재까지 살아가며...

간호사여서... 난 간호사인데...라 생각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 노력했다.

우물 안 개구리같이 병원이라는 사회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환자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간호법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는지 개탄스럽다.

우리 간호사는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언제나 국민 곁에서 지킬 것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김진수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아픈 사람을 위한 간호는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들에게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건강한 오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과 외로움의 늪에서 홀로 투병하는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옆에서 간호하는 간호사의 업무도 고강도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준법정신에 기반하여 병원에서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하고 싶습니다. 설령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서서 간호를 하고 있다고 한들, 어떻게 저희가 환자 곁을 떠나겠습니까.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한 몸 불태워가며 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하게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환자를 옆에 두고 간호사가 간호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헌법에 오른 법들을 정해놓은 듯, 간호사는 환자들을 당연하게 돌봅니다. 그런데 헌법에 법이 어긋난다면 새로 고치고 시대에 맞게 개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법으로 올바른 간호를 하는 것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지켜야 할 규정과 법적 책임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간호사의 직무 수행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많은 규제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간호법은 이러한 규제와 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간호사가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키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간호법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며, 의료 현장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시대에 지금의 노인들, 아파하는 환자들에게 직접 건강할 권리를, 간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간호법이 지금 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피해를 지금의 노인들과 환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일까요? 결국 10년, 20년 우리가 노인이 되고 환자가 되었을 때도 고스란히 그 풍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이 타이틀에서 벗어나 간호법에서 보장하고 존중받는 그런 대한민국의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훗날 후배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 나왔을 때, 불법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않고 전문직에 걸맞게 당당하고 자신 있는 돌봄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돌봄을 선행하고 선도하는 간호를 만들겠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간호법도 있는 나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간호법이 곧 환자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미래의 우리를 위하여.

반짝반짝 빛났던 나의 간호, 나의 간호는 여기서 ‘끝’일까? ‘쉼’일까?

— 건강한 행복의 시작을 위해 —

이경화 서울아산병원

2023년 5월 31일, 나는 간호사로서 3년 9개월 동안 일했던 서울 아산병원을 퇴사한다.

나의 간호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물한 살이었던 나는 중환자실 면회 이후 간호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보호자로 짧은 면회 시간에 찾은 중환자실이었지만, 그곳에서 보호자보다 더 가까워서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고 간호하는 간호사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았다. 먼저 간호학과에 입학해 공부하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도 들었다. 그렇게 간호사 직업에 대한 호기심은 열망으로 번져 내 꿈이 되었다.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간호학과에 입학해야 했고, 다시 수능을 쳐야 했다. 두 살 터울의 동생도 고3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사교육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하고,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마련하기로 다짐했다. 아버지께 간호사의 꿈과 목표를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간호사 힘들다’, ‘교대근무 힘들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라며 간호학과 진학을 완고하게 반대하셨다. 며칠 동안 간호사의 꿈에 대한 열망과 앞으로의 계획, 간호학과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대해 말씀드린 뒤에야 비로소 간호사의 꿈을 허락해주셨고 응원해주셨다.

그해 9월까지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다. 10월부터는 공부에만 집중하였으며, 수능이 끝나자마자 다시 아르바이트하였다.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로 했던 대학의 간호학과에 합격하였고,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 모두 내 힘으로 마련하였다.

간호학과 입학으로 간호사의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진 나는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간호사는 다양한 연령, 문화, 계층의 사람들을 환자, 보호자, 그리고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했다. 내가 학창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합창 동아리부터 멘토링, 해외문화 봉사활동, 대학생 기자단, 외국인 교환학생 도우미 활동, 환경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위해 도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교류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 ‘지친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는 간호사’,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간호사로

서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서울로 취업을 희망하였다.

2018년 8월, 꿈에 그리던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사하였지만 신규 간호사로서 부담감과 압박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퇴사하였다. 퇴사하면 힘들지 않을 줄 알았다. 내가 선택한 퇴사였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간호사였고, 나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퇴사도 내게는 힘든 과정이었다. 내가 꿈을 그리고 노력했던 시간에 비해 3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그 시간으로 간호사의 꿈을 접기에는 미련이 남았다. 그리하여 본가에 내려와 바로 대학병원에 지원하였고 합격하여 입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아산병원 채용이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간호사로서 다시 한 번 내 꿈을 제대로 펼쳐보고 싶었다. 그곳에서 간호사로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었다. 두 번째이기에 더 단단해지기 위해 노력하였고 더 굳세게 다짐하였다. 서울아산병원 채용과 합격, 입사 후 만난 귀한 인연들에 서울아산병원이 내게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실무진 면접 때 함께 면접을 봤던 지원자와 기숙사 룸메이트로 다시 만났는데, 알고 보니 룸메이트도 시기는 다르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나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다. 그렇게 같이 교육받고 쉬는 날 같이 공부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런 룸메이트가 독립 직전에 사직하였다. 옆에서 룸메이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에,

룸메이트도 나도 처음이 아니기

에 룸메이트를 붙잡고 싶었

지만 붙잡을 수 없었다.

룸메이트의 사직 결

심 이후 기숙사에

서 거의 매일 울었

다. 병원에 입사해

서 가장 먼저 맺은 인

연이었고, 가장 많이 의

지했고, 친해졌던 동기이자

친구이자 동생이었기 때문이

다. 룸메이트가 퇴사 후 룸메

이트가 없는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원내 도서관에서 문 닫는 시간까지 공부하다가 들어가 공부했었다.

독립을 앞두고, 독립 후에도 부담감과 압박감, 나의 부족함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다. 6인실 커튼 뒤에 숨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대로 포기하고 도망친다면 스스로에게 가장 크게 실망할 것임을 알았다. 출근이 너무 두려웠지만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다.

독립 후에 내가 만났던 환자분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밥은 먹었어? 밥도 못 먹었지? 집에 가면 늦더라도 밥 꼭 잘 챙겨 먹어”

“내가 자꾸 짜증내서 미안해. 네가 미워서 화낸 게 아니라 아파서 그랬어.” 이브닝 근무였던 나는 환자분께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환자분의 그 말씀을 듣고 퇴근했던 날, 기숙사에서 참 많이 울었다. 그 환자분은 내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이셨는데, 약을 먹기 싫다고 거부하시고 혈관도 좋지 않아 아프다고 주사도 맞기 싫어하셨다. 나는 환자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까지 어루만져 드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환자분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되고 싶었던 간호사의 모습을 상기시킬 수 있었고 그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의 괴리감으로 인한 속상함과 슬픔, 힘듦에 눈물을 흘렸다.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일하는 순간에도 환자, 보호자님이 얼른 한 잔 마시고 일하라며 사과증을 종이컵에 따라주시기도 하셨고, 초코바나 사탕을 주머니에 넣어주시곤 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 후배 선생님들이 입사하고, 나도 그사이 성장하였다.

입사 후 만 2년이 되던 시기 즈음이었다. 내 환자였던 분이 퇴원하시고 외래 잘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셔서 재수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우리 병동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팀 환자로 만났다. 그때와는 달리 BiPAP을 하고 계셨다.

며칠 뒤 나이트 근무 때에도 늘 내가 하던 일, 간호를 했다. 자세가 불편하진 않으신지, 그리고 가래로 호흡하시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셔서 가래를 뽑아드렸다. 그러고는 뭘 계속 찾으시길래 뭐 찾으시냐고 여쭙보니 ‘폰’이라는 소리 없는 대답을 눈으로 확인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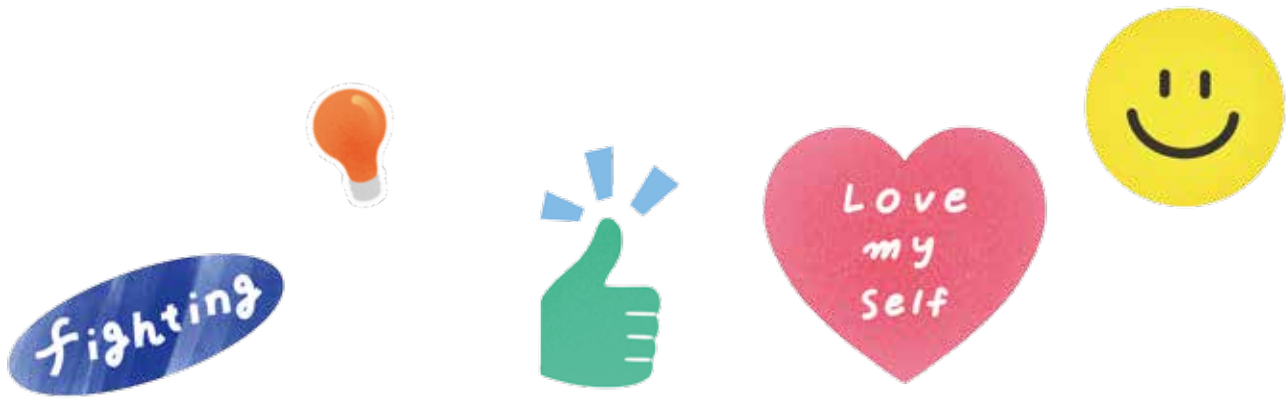


같이 찾다 환자분 베게 밑에서 폰을 찾았다.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자분의 그 휴대폰에서 ‘감사합니다’ 음성이 나왔다. 그 순간 나는 만감이 교차했다. 내가 들은 음성은 여성의 또박또박한 소리였지만 그 환자분의 목소리로 들렸고 너무나 감사했다.

간호사로서, 사람으로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음에 참으로 행복하면서도 환자분의 건강 상태 변화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힘들지만 힘든 것보다 보람이 훨씬 크고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 사람이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깊이가 남다른... 그게 바로 간호사란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수많은 환자, 보호자를 만났지만, 단 한 분도 잊지 않았다. 한 번은 교대 순회 후 첫 라운딩을 갔는데 2년 전에 나의 담당 환자였던 분이 환자분의 보호자로 계



섰다. 내가 나이트 근무할 때 응급실 통해서 응급수술 받고 올라오
셨던 분으로, 퇴원하실 때 내게 장문의 칭찬카드를 써주신 분이었
다. 그분이 우리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반가워서, 반가움에 기쁘게 인사드렸더니
“저 기억하세요? 수간호사 선생님이 기억하시고 저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던데...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기억하고 말고요. 밤에 수술하고 올라오셔서 퇴원하실 때까지 ○
호실에 계셨었잖아요.”

“혹시 이경화 간호사님이세요?”

“네,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너무나 감동이에요. 이렇게 건강
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니까 더 반가워요.”

환자분을 만나고 환자분과 대화하고 환자분을 간호하는 일이 참
으로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고 느꼈다. 내가 행하는 일이 다른 사
람을 위한 일이어서, 마음을 다해 행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은 내게도 긍정적 영향으로 돌아왔다. 참 의
미 있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또 삶을 바라보고 반성할 수 있어서 이 일이
참 특별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간호사 선생님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제가 할 일인걸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표
현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정말 힘이 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해주시면 그 마음에, 그 표현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정말 어느 날 보다 더 행복하게 근무했다. 내
게 선물 같은 하루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환자분을

대하는 나의 진심이 환자분께 전달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
을까?

UM님과 마지막 면담에서 아산병원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여쭙보셨다. 그 물음에 눈물이 먼저 반응했다. 서
울아산병원에서의 지난 시간들, 그 안에 담긴 나의 노력과 열정,
환자 보호자님과 나눴던 마음, 동료들과의 추억... 반짝반짝 빛났
던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큰 빛과 에너지가 되어주
리라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아산병원에서의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신규, 경력 간호사가 병원을 떠난
다. 나 또한 퇴사를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임상을 (잠시)
떠나기로 하였다.

최근에 환자분께 항생제를 놔드리는데, 환자분께서 내게 먼저 간
호법 이야기를 꺼내셨다.

“간호법이 통과되어야 할 텐데...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해야 하
고, 요구해야 할 건 요구해야 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변화도 발전도 없어. 말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들어주고 알게 되는 거야.”

머지않은 미래에 내가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퇴사를
아주 많이 후회할 만큼, 간호사가 병원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신규 간호사의 어린 꽃봉오리가 따뜻한 햇볕을 충분히
받고, 충분한 물을 받아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그 꽃
을 피워낸 경력 간호사는 성숙한 열매를 맺어 그렇게 간호사의 꿈
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 오길 바
란다.

이제는 간호사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때

-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 제공받기 위해 -

전혜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로 간호사로서 안전한 간호 제공을 위해서는 더욱이 전문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독 간호사는 월급을 더 많이 받지도, 주위에서 인정해주지 않지만 대학원에 진학하고, 자격증을 따며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받 고자 노력하고 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 아닌가?

현재 10년차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내 소중한 동료와 후배들은 떠나고 있다. 중증의 환자들이 생과 사를 넘 나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력직 간호사는 퇴사하는 중이다.

간호사들이 나약해서 퇴사를 하는 것일까? ‘과연 그럴까’ 하는 의 구심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들은 숙련된 간호사의 퇴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 물론 이제는 경력직 뿐만 아니라 간호사 자체가 없다. 신규 간호사를 아무리 뽑아도 그만두고 만다. 간호사들은 가족처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만들고 싶지만, 이러한 자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발휘하기에는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지시를 시행하며 회의감과 부조리함에 퇴사를 마음먹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의 어두운 실태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저질러지며 다들 쉬 쉬하기에 급급하다.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에서 퇴사하는 간호사들은 미국과 뉴질랜드로 이민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다. 왜 간호사들은 미국이나 뉴질랜드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 비단, 월급이 늘어나기에 이민을 시도하는 것일까?


지난해 공개된 한 대형 병원의 정원 과부족 현황 발표 보고서에 선 간호사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5.5시간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이기에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다들 쉬쉬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부조리함 때문에 간호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모두들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미래에는 전국에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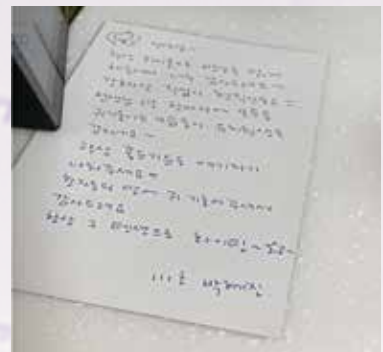
최근 환자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암 투병 중인 환자분께서는 간호사가 경청하고 증상을 살피고, 시행하는 간호에 감사 인사를 해주었다. 간호사는 환자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하며, 묵묵하게 본인의 업무를 시행하고 간호하고 있다. 이제는 당신들이 간호사의 말에 경청해줄 때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원이 필요한 때다. 불법적인 업무 지시가 합리화되거나 구태가 정당화되어 버리면, 간호사들은 더


 선생님~
 항상 하이톤으로. 친절함을 보여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강호사관 직업이 천직일까요?
 선생님 많 한마디에 만족함.
 귀기울이는 모습들이 유치원생들
 같으네요~.

항상 좋은기운을. 여기저기
 나눠주세요~
 환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상 환자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한다.

환자 분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말을 건넵다. “간호사가 천직이시네요”

맞다. 간호사들은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간호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 간호사들은 간호사로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 장안의 화제는 과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까 하는 이야기이다. 한국 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서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본인이 행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지도자의 덕목이란,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한 후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현실의 부조리함을 회피하고 우리들에게 거짓을 말한다면, 그러한 모든 거짓은 추후에 커다란 빛으로 미래의 당신들에게 다가 올 것이다.

간호사는 환자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는 간호사의 이야기에 경청할 때이다. 왜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 당신들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 가 질문하고 싶다.

이제 간호사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관심을 가질 때이다.

궁금하지 않는가? 이 모든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웰빙의 연속선, 웰다잉을 위한 선택 동행

-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

박정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1. 웰빙의 연속선, 웰다잉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꿈꾼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대중매체에서 방영하는 여러 건강 프로그램들을 접한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한 적색신호가 뜨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건강식품을 구비하기도 하고, 혹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식단이나 운동에 전념하기도 한다.

그러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며 몸과 마음이 하나씩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는 유한한 생명 앞에 죽음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마주하게 된다.

“자다가 죽는 게 호사지~ 호사야.”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주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기도 싫은 존재이며, 나 자신조차도 모르게 조용히 지나가 마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문장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평소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마지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릿속이 백지장이 된 것 마냥 오로지 슬픔에만 잠식되어 망연자실해버리고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순간도 내 삶의 일부이며, 온전히 나답게 잘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즉, 인생의 말미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마주하느냐에 따라 Well-dying이 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현재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도 당당히 마주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2. 선택 동행, 연명의료 전담간호사

나는 삶의 기로에 놓인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는 연명의료 전담간호사다.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막연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망연자실해버리는 그들 앞에 감히 현실을 마주하게 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지지하며 동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연명의료 전담간호사로서, 삶의 마지막 중요한 결정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생애말기에 꼭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과 방법에 대해 찬찬히 최선을 다해 전달한다.

그리고 그들이 비단 서식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법적 절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일어난 수많은 과정들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삶의 마지막 존재 의미를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삶의 색깔을 품고 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균일하게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가족들과의 역동, 인생의 남은 과업으로 인한 울림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환자와 가족들이 쏟아내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는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 귀중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헛되지 보내지 않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며, 그들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고자 한다.

이는 근사하고 화려한 언변과 현장의 의료처치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진실한 마음이 매개체가 되어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테두리 속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온전히 스스로가 결정한 죽음 앞에 열렬하게 마지막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주는 고유한 역할인 것이다.

작년 이맘때쯤 상담실에 찾아오신 어르신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난다.

“나는 말ियो. 올해 내 나이가 92입니다. 이제는 머리부터 발 끝까지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병원에 오면 하루 종일 진료 받다가 하루가 지나가요. 걷지도 못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어.. 이제는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지옥이요.”

지금도 이 말씀을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해진다. 어르신께서는 지금 당장 안락사를 원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 단지 힘들게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의 끝자락에서 심신이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어르신께서는 사진에 관심이 많아 공부도 열심히 하였으며, 노인대학에서 상까지 받았던 일,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컸으며, 현재 이렇게 아프게 된 이유들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풀어내셨다.

나는 묵묵히 그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 궁금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도 드렸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심히 고심하신 끝에 내린 결정에 따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남기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다.

“마음 편하게 고생 안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끝으로 미소를 건네시고 가셨던 어르신의 뒷모습을 보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언제나 함께 동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삶의 마지막을 목전에 두거나 혹은 말기 환자 곁에서 힘들어 하고 있을 가족들의 손을 잡고, 귀를 열며, 마음을 다해 삶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드리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오늘도 나는 병원으로 향한다.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병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상기하기 위해 검색해보았다. 간호사들의 일터인 병원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치료된 환자들에게 다음에 또 뵙자는 말을 쉽게 건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즉 다음에 또 치료받기 위해 아파라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호흡기내과 병동에서 폐암 환자들을 주로 만나는 전담 간호사로서 다음에 또 뵙자는 말을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많이 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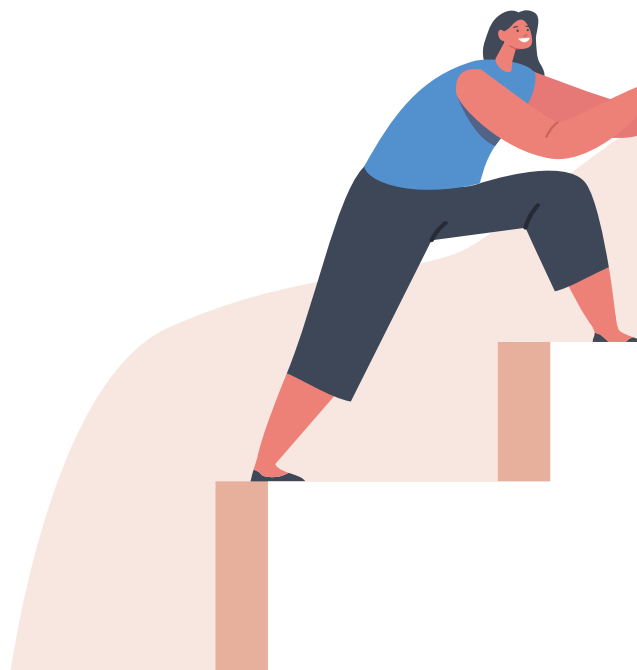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폐암, 1기인 경우 80~90%로 높은 편이지만 2기는 50%로 떨어지며, 3기 초기의 경우에는 30%, 3기 말기의 경우에는 15%, 4기의 경우에는 8.9%로 뚝 떨어진다. 초기 진단도 어려우며 초기 증상도 없는 병으로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는 환자들이 더 많은 편이다. 암의 종류와 병기가 확정되면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수술이 가능한 병기는 수술을, 항암요법, 방사선 요법, 항암 화학·방사선 병용요법이 가능한 병기는 그에 맞는 치료를 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다르듯, 나도 만나는 환자들이 다르다. 치료를 포기하고 남은 인생을 즐기겠다는 환자, 자식의 결혼식까지 만이라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하겠다는 환자, 초기에 수술할 수 있지만, 몸에 절대 칼을 대지 않겠다는 환자부터 치료를 결정하지 못하고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슬픔의 5단계를 거치고도 역순해서 거치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 완치될지, 재발이 될지, 암으로부터 살아남을지, 굴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선택이 시작되고 나는 그 중간에서 그들의 선택과 싸우거나 존중하거나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 환자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선택한 것이다. 의료인으로서 사실을 전달하고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내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다. 나의 말 한마디에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처가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럽다. 그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떠한 마지막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환자도 본인이 암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 환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난 환자나 가족들이 느끼는 그 슬픔, 고통이 어떠한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 그 슬픔과 고통은 주관적이기에 함부로 평가할 간호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3교대를 하는 일반 간호사 시절에는 나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담감, 그러므로 모든 일에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완벽할 수 없음에서 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초심을 간직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다른 부담감과 두려움이 나를 감싼다.

다음에 또 뵈요

-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

안정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사실 지금까지 만난 폐암 환자 중 나보다 젊은 환자를 만난다는 것은 아직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 령기에 내가 앞으로 환자의 남은 인생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도 되지 않는다. 사실 많은 책 을 읽으면서 인생에서 지나친 걱정은 내려놓자, 인생은 속도 보다는 방향이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자, 걱정은 사람의 마음가짐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지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하지 말라는 등의 위로가 과연 이들에게 위로가 될 글귀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환자를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면서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같이 울어주고 귀를 최 대한 기울여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이다. 그럼 그동안 환자나 보호자들은 간호사를 볼 때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을 얼마나 삼켰는지 체감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마지막에 “들어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을 남긴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을 나는 들어주고 공감만 해줬을 뿐인데도 그들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그럴수록 나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직 그들의 세상에 좋은 것이 더 많고 예쁜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빌어본다. 위태로운 삶을 무엇이든 견딜 수 있게, 자신에게 그런 것을 줄 힘이 남아 있길 바란다. 무한도전이 마지막 방송을 하던 날, 메인 MC가 이런 말을 했다. “매주 하다 보니 13 년이 된 거지, 처음부터 13년을 하라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렇듯 하루를 보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듯, 하루를 잘 보내자는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좋은 하루들이 쌓이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텼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환자들에 게 직접 치료가 되지 않는 무의미해 보이는 행위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의미 가 생기고, 그들의 역사가 되고, 그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매일 하는 걱 정과 매일 하는 두려운 생각들로부터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구겨졌던 그들의 마음이 나로 인해 깨 끗하게 펴졌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부려본다. 한편으로는 내가 전문 간호사로서 더 잘하고 싶은 마 음에 주체넘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나 또한 나의 걱정을 억지로 해결하지 말자고 다시 한 번 되새긴다.

어떠한 치료를 받든 삶의 끝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간호하는 것은 여전히 간호 사에게는 힘든 일이다. 그래도 나는 쉬어가도 좋으니 포기하지는 말자고, 아무리 힘들고 못 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보자면서 나를 위로한다. 요즘 들어 김지훈의 ‘참 소중한 너라서’라는 시를 하루에 한 번씩 되새겨본다.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 어떤 충고도 위로도 아니야. 그저 들어주고 따스한 온도로 안아 주는 거 단지 그게 필요한 것뿐 이야.”라는 글귀가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넘어 한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한 환자가 퇴원할 때 간절하게 인사를 건네 본다.

“다음에 또 뵙요.”



다양한 환자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 제공받기 위해 -

이하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간호를 하다 보면 다양한 성격을 가진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게 된다. 간호사에게 존대를 하며 감사 인사를 건네는 환자, 하대와 반말을 쏟아내며 인격을 깎아내리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와 보호자를 마주하게 된다. 항상 환자들에게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지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환자와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된다. 내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환자가 병원 전체에 컴플레인을 할 수 있기에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럴 때 가장 의지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동료 선임 간호사이다. 같은 근무에 선임 간호사분들이 많이 계시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해결방법을 물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IV와 관련한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던 환자와 보호자를 마주한 적이 있다. 환자의 IV를 시도한 뒤 fail 하여 정맥주사 전담 간호사에게 의뢰해 IV line을 잡은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환자는 새로 잡은 정맥주사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처음에 담당간호사인제가 시행한 IV 실패한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보호자에게 연락

을 했고, 보호자는 환자의 입장만 듣고 화가 나서 병동으로 전화를 하여 심한 컴플레인을 하였다. 처음에 담당 간호사인제가 전화를 받아 응대했지만, 선임 간호사와의 통화를 원했고, 선임 간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연결시켜 주었다. 선임 간호사 선생님에게 보호자는 간호사가 IV 실패하는 것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간호사의 자질을 운운하고 컴플레인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인 저는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임 선생님께서 전화 응대에 잘 대처해 주셨다. 선임 선생님께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먼저 보호자의 말을 차근 차근 들으며 주 컴플레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호자와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셨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받아주면서도 간호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정을 하며 보호자를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사실 환자와 보호자가 하는 말을 다 들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상처를 입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간호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간호사로서의 회의감도 들었



다. 선임 선생님께서 보호자와의 통화를 끝내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고, 다시 힘을 내어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선임 간호사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크게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선임 간호사들의 존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상황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진하게 되어 병원을 떠나려고 하는 실정이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간호사는 발 벗고 나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고 견뎌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호법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법제정을 위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변화의 필요성이 크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전히 간호사들은 그저 병원의 부속품처럼 여겨지며 경력 간호사들의 높은 사직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경력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이탈을 막지 못한다면 의료현장은 신규 간호사들로 계속 채워질 것이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신규 간호사들 또한 소진되어 그만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새로운 간호사로 채우고, 그만두고 이런 상황들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환자들은 질 높고 안전한 간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의 정원을 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휴인력들의 다시 의료계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 학생일 때와는 다르게 실제로 현장에 나와 일을 하다 보니 경력간호사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고, 경력 간호사의 이탈을 막는 것이 전체 간호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느끼게 되었다.

이렇듯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전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를 확보하여 환자 또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전체 건강을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시작하는 20년

이은정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2002년 훌륭하고 친절한 간호사가 되겠다며 입사한 20대.

막상 간호사로 일하며 나는 진정으로 어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의문의 답을 알기에는 내가 너무 생각 없이 그저 직업적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지? 아니면 어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거지? 그저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간호사마냥 일하고 있는 거 같은 생각에 회의감이 가끔 들기도 했다. 이런 고민이 너무도 흔한 고민이면서 누구나 한번쯤 흘려가듯 겪는 생각일거고 그러한 흔한 생각에 내가 왜 사로잡혀 깊게 생각하는 가 싶지만 그런 흔한 생각이 어찌면 간단한 해결책을 줄 거 같다.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같은 고민이 한창 들 때였다.

어느 날 초등학교생인 아들이 물었다.

아들 : “엄마는 병원에서 무슨 일해?”

나 : “엄마는 간호사야.” (당당한 목소리로) ^^

아들 : “그럼 어떤 일해? 무슨 일?”

나 : “엄마는 유방암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해!” (조금 줄어든 목소리지만 당당하게^^)

아들 : “거기에서 치료해 주는 거야?”

나 : “치료는 아니고~ 음. 엄마는 치료를 도와주는데... 검사를 설명하고 음~” (쭈뼛쭈뼛 더 작은 목소리로)

사실 딱히 나의 업무를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간호사로 일하지만 외래근무를 하는 나로서 치료하는 사람도 아닌 주사를 놓는 간호사도 아니고 외래간호사를 아들에게 더 정확히 얘기해 주고 싶었고 그저 간호사로 일한다가 아니라 조리 있게 전문적으로 말 못해주는 내 자존심에 순간 상처가 생겼다.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나의 길을 좀 더 두텁게 만들고 싶어졌고 막연히 공부에 도전을 해보기로 했을 때 나의 멘토 이신 파트장님의 대학원 권유... 사실 공부에는 크게 생각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 굳이 내가 무슨 공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주체성을 잃어가는 동안 멘토님은 나의 길을 잡아주기 위해 길을 내어 주셨다. 사실 그 전부터 근무지인 유방암 센터에서 유방암 환자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으며 젊은 유방암 환자, 또는 유전성 유방암인 환자들을 많이 접하면서 유방암이 아닌 유방암 환자에 집중하고 그 환자를 도울 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특별히 더 공부하거나 더 알아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유전성 유방암 환자의 상담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간호하는 공부를 해보고자 유전상담학의 대학원에 관심 갖고 지원하게 되었다. 안하던 공부를 마흔 살 넘어 시작하려니 두려웠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나의 20년 병원경력으로 요령도 생겼고 환자를 대하는 방법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터라 나의 공부가 누구보다 더 어울렸고 자신감이 생겼다.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교인 아들에게 “공부해라!”가 아닌 “공부하자!” 요즘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같이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필기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왜 이렇게 어려운 공부해? 왜 다 영어야?” 엄마의 공부가 어렵다고 느껴졌는지 아들이 물었다. 매번 아들에게 공부하라 지시적으로 들렸을 엄마의 외침이 이젠 엄마가 자신보다 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거 같아 조금씩 자존심이 회복되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나는 나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전문적인 간호사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미흡한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다. 많은 간호사분들이 육아며 간호사업무며 바쁜 시간을 내며 공부도 하시고 또 다르게 자신의 발전을 위해 많이 애쓰시는 더 대단한 분들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 많은 전문지식과 더 많은 학위와 다른 전공을 지닌 더 훌륭한 분들에 비하면 이제 하나 겨우 공부를 시작한 그저 간호사 후배일 뿐이다. 그 분들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뿐인 우리 아들에게 부모되기 전에 인생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는 나의 시작을 알리고자 글을 시작한 것이다. 자식이라고 부모가 강요하는게 당연한 것은 아닌 거 같다. 내가 모범이 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의 인격도 만들어 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해

아이들에게 간호사로써 엄마의 지나간 20년의 모습과 앞으로의 20년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스스로 응원하기 위해 글을 써 보았다. 아직 1학기를 보내고 있지만 벌써부터 아들이 한 번 더 엄마의 일을 물어봐주길 기다리고 있고 같이 공부하는 때 순간이 당당하고 자랑스럽다. 나는 간호사로 환자의 치료를 도와주고 설명하고 또한 그분들의 질병에 대한 앞으로의 고민을 좀 더 깊이 듣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잘 해야 할 거 같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나를 누구보다 응원한다. 또한 나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시는 다른 간호사분들의 꿈도 응원하고 그 분들도 같이 용기내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참고로 얼마 전 아들이 또 다른 질문을 했다. “엄마 간호법이 뭐야?”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또 다른 많은 질문을 할 것 같다.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엄마이자 인생의 길잡이가 되려고 노력해야겠다. 또한 나의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질문이 아닌 같이 해답을 찾는 그런 엄마와 아들이 되고 싶다.

신규간호사로 독립한 지 4개월째에 있던 일이다. 보호자가 있는 일반병동에서 보호자가 없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바뀐 지 두 달째 되던 때였다. 간호행위 자체가 미숙했던 터라 환자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필요한 것을 적절 채워줄 수 있는 능숙한 간호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와중에 보호자의 역할까지 해내는 것을 내겐 아주 버거운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89세 어떤 할아버지가 입원을 하셨다. 최근에 구강암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집에서 낙상하는 바람에 어깨에 골절을 입은 환자였다. 그 할아버지는 최근 구강암 수술로 인해 뺨과 구강 내부의 수술 흉터가 다 아물지 않아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셨고, 식사 또한 힘겨운 상황이었다. 심지어 수술 후 섬망 가능성도 높은 고령에다가 고관절에도 미세골절이 있어 침상에서 대소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나로서는 부담되고, 걱정되는 환자 그 자체였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수술 후가 문제였다. 통증도 심한 상태인데,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할아버지는 매번 알 수 없는 신음들로 소리지르셨다. 호출벨을 누르라고 말씀을 드려도 소리를 지르셔서 담당 간호사들이 환자 주변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부르셔서 가면 알 수 없는 소리로 말씀을 하셔서 매번 간호사들이 소통하는 데에 애를 먹곤 했다. 할아버지에게 너무 신경이 많이 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실에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식사는 매번 한 손가락씩 먹여드려야 했고, 기저귀도 수시로 갈아야 해서 정말 손이 많이 갔다.



“할아버지, 잘 지내시나요?”

-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

이영섭 경희의료원



그런데 문득 9년 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우리 할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소리를 지르시곤 했다.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난 뒤부터 침상에서 대소변을 봐야 했고, 식사는 손수 드려야 했다. 모든 상황들이 친할아버지와 비슷하게 느껴졌다. 그러고 나니 할아버지에게 알 수 없는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신음으로 소리를 지르실 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할아버지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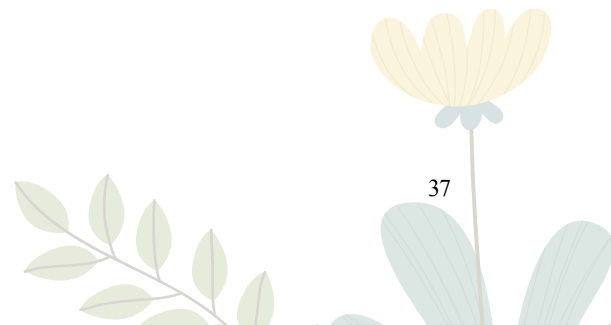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드리고자 하니 할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남들에게 알 수 없는 소리가 나에게 ‘베개가 불편하니 조금만 빼 줘.’, ‘기저귀 갈아줘.’, ‘추워. 가방에 있는 털모자 씌워줘.’ 라고 들리기 시작했다. 많은 간호사들이 할아버지와 정이 들어가면서 그 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유독 내가 가장 잘 알아듣는 간호사 되었다. 오죽했으면 할아버지의 알 수 없는 소리에 다들 “영섭이는 알 텐데” 라고 하시기도 내가 통역해 드리기도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 즐거워졌고, 말씀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을 척척 채워드릴 수 있어서 기뻐했다.

할아버지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다. 아들 넷, 딸 하나였는데 자제분들이 돌아가면서 면회를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자녀분들 중에 나와 이름이 같은 분이 계셔서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직접 부르고 하셨다. 나를 포함한 다른 간호사들은 할아버지의 자녀분들이 오실 때마다 할아버지의 통역가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옆에 있는 자녀들보다 필요한 것을 바로 챙겨주는 간호사들을 더 찾으셨다.

그 사이에 나는 일에 적응하게 되었고, 주어진 시간보다 해야 할 일을 빨리 마치고 나면 내가 먼저 나서서 환자들의 불편한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주곤 하였다. 특히나 계속 누워 계실 수밖에 없던 할아버지에게는 수동적 관절운동도 해드리고 욕창 예방 마사지도 해드리고 머리도 빗겨드렸다. 할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미리 파악해서 자녀분들에게 면회 때 사오라고 말씀드리고, 사오면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다. 진심으로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해지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소망했다. 진심이 통했는지 할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몇 주 뒤, 할아버지와 퇴원이 결정되었다. 할아버지가 나의 바람대로 건강 해져서 퇴원하신다는 게 정말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론 아쉬운 마음도 컸다. 할아버지의 퇴원은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았다. 본과뿐만 아니라 타과 외래도 잡아야 하고, 소독도 여기 저기 진행하고 가야 했다. 모두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할아버지의 퇴원 담당 근무가 다행히 내가 되어서 기쁨으로 척척 준비할 수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퇴원하시는 것처럼 준비를 하니 잘 준비해드리고 싶었다. 퇴원 수속을 하러 온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입원 중 자주 사용하셨던 물품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추후에 수술부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꼼꼼하게 설명을 했다. 입원 후 가족들보다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옆을 가장 많이 지켰던 사람이었기에 당연하고 자신 있게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나에게 참 뿌듯한 순간이자,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할아버지가 퇴원하시며 정말 병동을 떠날 때 내 손을 잡고 그동안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할아버지에게 ‘제가 너무 일에 지쳐서 무심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그거 다 잊어 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나는 기분 좋은 이별을 했다.

참 미숙하고 어렸던 신규간호사 시절에 할아버지를 만나고 보살필 수 있었던 건 내가 행운이었다. 환자에게 경청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그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일이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많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할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켜낸다. 환자가 아무리 힘들 게 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그 옆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가장 노력하며 헌신한다.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환자를 지켜내며 얻는 이 기쁨을 지금도 많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 선배배님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환자도 만족하고, 간호사도 만족하는 이 기쁨의 순간들이 계속되길 소망해본다.



신/세/계

이지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수술실 5년차.

트레이닝 받은 수술들이 손에 익을 때 쯤 이름도 생소한 “하이브리드 방”의 팀원으로 선발되었다. 눈으로 혹은 Scope로 보는 해부학이 아닌 방사선을 통해 보는 해부학은 신세계였다. 투시영상을 통해 보는 해부학은 혈관이 주였고 내부 장기는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술이 Lesion 주변 부위의 관련 Anatomy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면, 중재시술은 온 몸에 있는 혈관을 통해 Lesion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전신 혈관 주행경로를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Lesion의 Anatomy를 추가로 알아야 했기 때문에 매일 보던 해부학이 낯설게 느껴졌었다.

떼어주고 자르고 이어붙이는 기존 술기와 다르게 중재시술은 Lesion을 치료하는 다양한 시술방법이 술기보다 빠르게 발달되어 새로운 시술방법, Device를 자주 익혀야 했다.

수술실 특성상 여러 방을 담당했었는데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체감되어 하이브리드 방을 가기 전 날에는 요약노트를 펼쳐보거나 이전 시술과정을 리뷰하여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했었다.

응급수술이 많은 혈관수술 특성상 하이브리드 콜을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받았는데 ‘환타’라는 별명에 맞게 주중에 1번, 주중에 1번씩 꼭 불러 콜 담당인 주에는 샤워하는 것도 두려웠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응급은 흉부외과 방에서 Total arch replacement후 체위 변경하여 Descending aorta도 Replacement 해야 하는데 중재시술을 통해 Graft stent를 덧대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콜을 불린 적이 있었다. 흉부외과 방에서 Ambu를 짜며 하이브리드 방으로 환자를 옮겨 시술을 진행하려던 차에 CTD에 피가 팔팔 차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가슴을 열어 응급으로 수술을 하려했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었다.



수술 후 환자의 Post는 잘 몰랐던 터라 수술을 하면 다 낫는다는 나의 오만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결과가 너무 처참하여 한동안 수술을 참여할 때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아 손을 떨면서 근무했었던 적이 있었다.

학교 실습 때 장기이식 수술을 참관하며 그 곳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분주한 모습에서 삶과 죽음 그 경계선에 서있는 듯한 가슴 벅찬 느낌을 잊지 못해 수술실에 지원했었다. 그 전율을 차츰 잊고 나의 자리를 찾고 있을 때 하이브리드 방의 방장이 되었다.

서울성모병원 하이브리드 방은 여타 다른 병원의 하이브리드 방보다 임상과 간의 협진이 잦고 수술실을 자주 이용하는 외과계가 아닌 내과계 수술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난처한 일이 많았다. 수술 스케줄을 내고 마취과 컨펌 후 스케줄이 확정되면 수술하는 루트가 생소한 내과계는 모든 과정을 물어보다보니 수술 외에 협조해야 할 일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을 땐 속상했었다.

Pacemaker insertion을 위해 입실했던 환자가 있었다. 진정제 투여 후 활력징후 관찰 및 증상 확인하며 시술을 진행한 뒤 다행히 환자가 잘 깨어나 추가 투약 없이 Stable하게 시술을 종료했었다. 이후 환자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친절히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칭찬카드를 보내주셔서 UM선생님과 동료들에게 축하를 받았었다. 병동이나 외래 간호사만큼 환자와 크게 대화할 일이 없는 수술실 간호사에게 환자분의 칭찬카드는 환자와의 교감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대화의 스킬보다 낮은 공간에서 불안한 환자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이브리드 방을 맡은 지 2년차, 아직 병아리 방장이다.

Decision이 빠른 영상의학과 교수님 시술을 준비할 때면 아직도 떨리고, 중재시술에서 Open surgery로 전환될 때면 험레벌떡 준비하기 바쁘다. 하지만 폐쇄적인 수술실에서 다양한 임상과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좋고 수술을 준비함에 있어 임상과와 의견을 조율하여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하는 과정도 즐겁다.

하이브리드 방은 나날이 발전하는 시술방법을 남들보다 먼저 접할 수 있어 나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고 하이브리드 방에 근무하는 방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끈끈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다.

실습기간 수술실에서 느꼈던 그 벅찬 전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준 하이브리드 방에 감사함을 전한다.

숙련된 간호사 양성일기

-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 제공받기 위해 -

정해수 경희의료원

간호사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대학병원의 교육간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10년차 간호사다. 간호사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생소할 수 있으므로 설명부터 하자면, 간호사들의 근무시간과 근무 조건을 개선하여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신입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을 줄여주는 데에 의의가 있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하는 국가차원의 사업이다.

나 역시 위와 같은 사업이 생소하고, 교육간호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일인지도 모른채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다음 달이면 어느덧 교육간호사로서 1주년이 된다. 1년 동안 교육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왜 신입간호사들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느낀점을 공유하고 싶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8월의 어느 날, 오후 7시 39분.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을 먹고 막 드러누우려는데, 이브닝 근무 중인 신입간호사에게 문자메세지를 하나 받았다. '선생님 지금 당장 면담 가능하신가요?'

이제 한달여정도 된 신입간호사여서 한참 프리셉터에게 교육을 받고 있을 시간에, 그것도 내가 퇴근했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로 묵묵부답인 신입간호사. 나는 너무나 걱정이 되서 바로 나갈 채비를 하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유니폼을 급히 갈아입고 도착한 병동에서 신입간호사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맺히더니 이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난 너무 놀래서 우는 신입간호사 얼굴을 급히 숨기고 프리셉터에게 양해를 구한 뒤 교육간호사실로 데려갔다. 알고 봤더니 이날 신입간호사는 프리셉터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혼이 많이 났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담당 현장 교육간호사인 내가 떠올라 무작정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다.

간호사는 4년여 간의 대학 교육과정과 함께 1000시간 이상의 실습을 마쳐야만 국가고시에 응할 자격이 주어지며,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와서 8주간의 교육과정을 또 거치게 된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많아도, 막상 현장에 오면 겁부터 나고, 혼이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눈물부터 나는 것이 신입간호사들의 현실이다. 교육간호사가 신입간호사의 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프리셉터의 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 프리셉터들도 3년 이상 임상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 그리고 신입간호사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막상 현장에서 근무가 시작되면 예민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또 받아도, 늘 배울 것이 많은 직업이 간호사이고, 늘 배움을 필요로 하는, 배움의 자세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간호사다. 최신의료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하기 위한 도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임상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숙련된 간호사라 함은, 다양한 상황에 탁월한 임상 판단력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간호사를 지칭할 것이다. 이런 숙련된 간호사들은 의사소통 기술 또한 뛰어나서 환자

와 보호자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숙련된 간호사였을까? 그리고 처음부터 숙련된 간호사가 있기는 할까? 국가는 숙련된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곧 나의 역할이자, 숙명일 것이다. 나역시 숙련된 간호사가 맞는지, 누군가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도, 내가 처음으로 맡았던 신규역시 이제 곧 1년이 되는 걸 보면서,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곤 한다. 나와 함께 성장해오면서 이 친구 밑으로 어느덧 후배가 2명이 나 더 생겼다.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것이 대견하지만, 아직도 자신은 한참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다고 대답하는 겸손한 친구다.

수년간의 교육을 걸쳐 왔지만, 임상에 와서 눈물부터 보이는 신입간호사, 그리고 1년이 됐지만, 또 프리셉터가 됐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으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간호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간호사들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 제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 역시 지금도 이런 간호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전달력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는 간호법 제정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의 질 관리와 표준화를 제공한다. 어쩌면 우리가 전문성 유지와 개발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 역시 숙련된 간호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교육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노력하는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입간호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이 이런 간호사들의 노력을 알아주어 비로소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마음 놓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윤리적인 간호 실천을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입법화가 되어야 합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의료 직군들이 협력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기를 바라며,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 되어야만 합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애썼는데,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은 절망하지 않으며, 주저앉지 않으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 갈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국민들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보호복과 결투하며 상처 난 얼굴에 서로 반창고를 붙여가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잘 이겨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반드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간호현장에 근무 한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직업을 택한 건 나이팅게일의 선서처럼 환자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내 한 몸 바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이나 직업의식을 가지고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취업률이 높다는 이유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였으며, 졸업 후 병원에 입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간호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993년 간호사의 첫발을 10명의 동기들과 함께 시작하였는데 병원의 낮은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해 그해 12월이 가기도 전에 5명은 병원을 떠났으며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입사 일 년 안에 사직하거나 연락두절로 출근하지 않는 간호사들이 흔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간호법

- 국민 안전과 환자 안전을 위해 -

이정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일 년만 버텨야지, 버텨야지 하면서 퇴근 후 울면서 잠이 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시킨 직업도 아닌데, 왜 그렇게나 버티고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배님들과 동료들의 위로와 의지 없이는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며 나 때는, 나 때는 하면 곧대라 취급 받겠지만, 그 시절은 정말 많이 힘들고 버거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 그렇게 버티며, 잊으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걸 느끼며,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지금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였지만 보람과 사명감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순간이 정말 더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환자분들의 쾌유와 건강을 빌며, 함께 손을 잡고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 병원을 떠나고 싶은 순간순간이 정말 너무 많았지만, 지금의 저는 간호사의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버티고 견뎌야만 했던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는 당연하다며 포기해 버린 저의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 견디라고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는 간호법이 존재하는 그런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3교대 근무로 인해 간호사들의 몸은 망가지고, 의사들의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로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고 그래서인지 3년 이상을 버텨내는 간호사들이 귀할 정도로 병원은 끊임없이 신규간호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의 선택을 진심으로 후회하는 후배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규간호사들은 병원 문을 두드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상처를 받고 병원을 떠나고 있으며, 또 다시 병원은 신규간호사들로 채워지고 있으니 경력직이 부족하여 모두들 힘들어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의 간호업무였다면 그렇게 쉽게 병원을 떠나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딸도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직업인 것을 알고 있기에 처음엔 저도 반대도 많이 하였지만 어쩔 수 없어 딸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의 미래를 위해서도 엄마인 저는 간호법이 폐기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의와 열정을 다해 큰 목소리로 간호법, 간호법을 그렇게나 힘차게 외치고 외쳤는데,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 부질없는 일이 되어 버릴까봐 두려워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선배이면서, 후배이면서, 동료이면서, 엄마이면서, 국민의 한 사람인 저는 간호법의 제정을 간절히 간절히 염원합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을 기원하며 오늘도 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환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간호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눈물

정현 건국대학교병원



환상의 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여행으로 나 놀러라도 가고 싶은 섬.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 여행을 4번이나 다녀왔지만 또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제주도이다. 그런 제주도를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들과 함께 2박3일 간의 여행은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마냥 아름답고 맛있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보였던 이 제주도에 아주 아픈 과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로는 제주도 여행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나와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제주도의 여러 관광지를 다닐 때마다 숙연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씩씩하게 잘 이겨낸 제주도 사람들의 강인함을 생각하면서 다니길 바란다.

여름철에만 갔던 제주도를 봄의 향기가 완연하게 느껴지는 4월 중순에 가니 경치와 공기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노동조합 우수 조합원이라는 명칭 하에 43명이라는 인원이 잠시나마 일터에서의 뻘뻘함을 잊고 떠나는 2박3일은 우리 모두에게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들뜨고 기분 좋음의 시작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다시 시작된 행사이기도 하고 다른 부서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떠났다.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제주 4.3평화공원이었다. 제주 4.3평화공원은 가족 여행으로 왔을 때 지나가면서 이정표로는 여러 번 보았던 것 같은데 정작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던 곳이었다. 그저 제주 4.3사건에 대해 학창 시절 역사 시간에 배웠던 간략한 의미 정도만 알고 있었기에 가봐야 하나 하는 생각만 하고 그저 무심히 지나기만 했었는데...

이번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제주4.3평화공원이라기에 조금은 색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색다른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제주도의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어서 충격을 받았고 비통함을 느꼈다.

봉인함의 위패를 보기 전 제주 4.3사건에 대한 영상과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을 시간이 있었다. 가이드 분은 연세가 60대는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너무도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힘은 드시겠지만 보람을 느껴서 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서, 사건들과 왜 그랬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제주도민들의 항쟁으로만 알았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제 강점 시기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었던 때, 이곳 제주도는 더욱더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 제주도민들이 피땀 흘려가며 하루하루를 버텨오고 있었는데, 광복과 함께 찾아 온 희망을 갈기갈기 찢어 버린 그 상황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였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들의 애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그들만의 방법으로 삶과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을 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무수히 많은 제주도민들의 삶을 짓밟아 버렸더니 내 얼굴이 일그러지며 마음이 아팠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대화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제주도가 흘린 피와 눈물은 그 누가 알아주고 헤아려 줄 것인지가 참 궁금했다.

그 당시에 제주도민이 20만 명이었는데 7년이 지나고 제주도민이 공식적으로 3만 여명이 사라졌다고 한다. 비공식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망한 사람 중에 20.9%는 여성이고 14.5%가 15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노인들이었다고 한다. 힘없고 나약한 이들의 피해가 더욱더 심했다니 그 시대의 참상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있는 봉안실에 묵념과 참배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갔다. 무수히 많은 위패들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별로 모아서 줄지어 모셔놓은 위패는 한 가족이 다 몰살당한 곳도 있었고 한마을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위패가 있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 북촌리라는 마을에서는 하루이틀사이에 400여명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날이 그 마을 전체의 제삿날이 되어 제사를 지낸다 하니 당사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2000년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어 진상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100%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니 이 또한 앞으로 다음 세대가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다. 4.3 평화공원에는 만 여명의 위패가 모셔져있는데 그 당시 더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 그들의 억울함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제주도에서 4.3은 금기어에 속해 그 누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고 얘기도 안 했다고 한다. 그 시대의 참담함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제주 4.3사건은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 래도 21세기에 와서 정부가 사과를 하면서 그나마 화해의 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제주 4.3 평화공원도 조성하고 4월 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면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추모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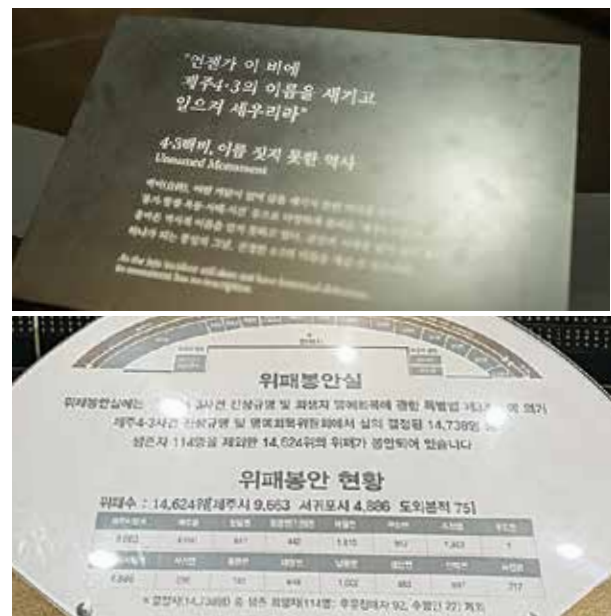
가이드분의 설명 중 전쟁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단순 사망으로 3만 여명이 짧은 시간에 죽임을 당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팠고 왜 그런 일

이 우리나라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제주도에서 일어나야만 했는가라는 안타까움도 밀려왔다. 그리고 우리가 다녀갔던 관광지들이 그 당시에는 제주도민의 피와 죽음이 있었던 곳이라는 얘길 들으니, 마냥 즐겁고 멋지다고 구경했던 시간들이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울 뿐이었다.

4.3 평화공원을 나오면서 우리 43명 모두는 처음에 제주도에 왔던 들뜨고 기뻐던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비통함과 안타까움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적인 일들을 되새기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았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음 장소인 절물 휴양림을 들렸는데 다행히 그곳에서는 삼나무의 늠름함과 단호함을 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잊지말고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더 나은 것으로의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해 본다. 다음에 기회가 되어 가족여행을 온다면 그때는 꼭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곳에 와서 하나의 역사의 장을 꼭 보고 느끼고 가도록 하고 싶다. 마음은 비록 무거웠지만 제주도의 눈물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길 바란다.

우리의 힐링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공감과 간호를 제공하는 우리는 모두 숙련된 간호사입니다.

-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 제공받기 위해 -

신현진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숙련된 간호사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동네의 작은 병원 그 어디에나 존재하며, 24시간 돌아가는 병동뿐만 아닌 외래진료 또는 지역사회 곳곳에 늘 함께 있습니다. 병동에 입원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지만 외래에서 통원하는 환자를 간호하는 것도 중요한 간호사의 업무이고 숙련된 간호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불안하고 궁금한 것 투성이입니다. 잘 발달된 인터넷을 찾아보고, 같은 경험을 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다양한 견해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괜찮은 것인지 불안에 떨며 병원을 내원하여도 진료를 보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대

기 시간보다 짧은 몇 분의 시간입니다. 진료를 보고 나와도 생기는 궁금함에 다시 들어가 물어보고 싶지만, 진료실 문 앞 나 말고 대기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시 진료실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때 그 환자 곁에 다가가 막연한 치료 과정에 대해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등 환자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 해주고 환자의 궁금함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건 그 질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숙련된 간호사입니다.

환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또는 반복되는 질병에 대한 불안에 공감해 주고, 그 공감과 의료 지식에 의거한 간호를 제공, 심성을 다한 간호를 함으로써 줄어드는 환자의 불안과 통증은 여러 환자를 간호하며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고, 공부의 길이가 길다고 그 간호사를 숙련된 간호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승진에 상관 없이 공임없이 자기의 능력을 올리기 위해 공부를 하고, 관련된 학회를 찾아 학회에 참석하여 동향을 살피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실무로 돌아와 간호사의 역할로 환자의 곁에서 환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숙련된 간호사입니다.

저희는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로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많은 환자와 업무에 지친 간호사의 '간호'가 아닌 정말 간호사로서의 '간호'를 제공해 주기 위한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이 외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 국민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

지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간호대학생 신분으로 모 대학병원 실습 중 ‘간호사 총궐기’라고 쓰인 포스터를 본 기억이 있다. 노조와의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면 간호사가 파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파업이 예정됐던 날, 병원은 평화로웠고 실습하던 병동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빠 보였다. 몇몇 간호사 선생님들은 파업 예정일이 오늘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왜 파업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는지 의아해했었다.

2020년, 면허를 발급받아 지금의 병원에서 햇수로 3년을 근무하며 사측과 노조 간 협상을 세 번 겪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도 실습을 했던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안건, 협상의 내용에 관해 알지 못했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핑계를 대보자면 우리는 업무가 몰아칠 땐 끼니도 챙기지 못하고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근무한다. 병동 내에 협의문 등 관련한 소식지가 비치되어 있었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간호사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였다. 노조에서는 이런 실정을 파악하여 우리가 관련 소식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소식지를 전송하고 출입문 앞에 간이부스를 설치해 전단을 배부하거나, 구내식당 테이블에 전단을 부착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소식지는 읽지 않은 메시지로 넘겨버리기 일쑤며 전단들은 갱의실 테이블에 쌓여간다. 앞서 업무가 바빠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핑계일 뿐, 관심의 문제다. 이런 무관심의 원

인은 우리가 은연중에 간호사는 교대근무가 힘들어 오래 하지 못할 직업이고 내가 피곤하게 저런 일에 관심을 갖고 나서지 않아도 월급은 딱딱따박 나오며 병원은 어떻게든 돌아가니까. 누군가는 움직이겠지 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이번 달 오프 수는 몇 개이며 몇 번의 근무가 남았는지 세어가며 하루하루 근무를 쳐내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최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의료계열에 종사하지 않는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들도 몰랐던 나는 그제야 관련 내용과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법안이 제정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법제화되어 근무 환경,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조금 더 오래 임상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지난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시청역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다. 누군가는 이 두 시간의 행사를 위해 새벽부터 왕복 8시간의 거리를 달려왔고 단식 중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학업과 각종 실습으로 바쁜 간호대학생들은 대통령께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편지를 발표했다. 임상을 겪어보지도 못한 학생들도 발 벗고 현장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관심하던 지난날의 나를 반성했다.

나는 간호대학생을 거쳐 간호사로 일하는 동안 생명의 탄생과 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무수한 감정과 보람, 경험과 후회들이 내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배울 수 있었다.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다양한 상황들을 겪으며 내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체로 만족해왔다. 지금도 처참한 근무 환경에 치이고 있다면 더욱이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고 힘을 실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업무의 범위가 명시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법제화되어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면 많은 간호사들이 임상에 더 오래 남을 것이고, 국민들은 적절한 수의 환자를 배정받은 숙련된 간호사에게 간호를 받으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에 기여될 것이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속보가 들려온 지금, 모든 간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위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위로의 힘이 병원 안이 아니라 병원 밖, 내 가족에게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동료들을 통해 배웠다.

우리 엄마는 5년 전 신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수많은 입원과 항암, 결국엔 원발 부위인 왼쪽 신장을 절제한 이후로 전이된 폐암과 싸우고 있다. 하나뿐인 아들이 되어서 엄마에게 큰 위로가 되고 싶지만,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엄마다. 그 모습을 자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정말로 무력감이 든다. 몇 달 전 그러한 무력감이 이번에는 몸집을 불러 나를 찾아왔다. 제자리를 유지하던 암 덩어리가 다시 커지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최후의 항암제인 3세대 면역항암제를 써보기로 했다. 하지만 면역항암제 마저 부작용으로 엄마의 흉강에는 물이 차올라 실패했다. 치료를 위한 치료는 엄마를 더욱 힘들게 했고, 이제 말기 암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말에 나는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았다. 간호사인 나는 암의 진단부터 말기 암환자의 죽음까지 모든 과정을 알기에 덤덤했다. 그냥 생각했다. 우리 엄마가 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보다 내 직업적 장점은 나의 멘탈을 강하게 해주지 못했다. 아픈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우리엄마였고, 난 간호사가 아닌 엄마의 아들이었다. 항상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생각만 하던 현실과 나는 마주보게 되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지만 난 처음이었다. 수많은 암환자를 봐왔지만 처음이었다. 가까운 사람을 보내는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엄마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해야 할까, 그 모습이 되려 엄마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온갖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티를 내지 못한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유일한 의료인이고, 가족들을 위로해줘야 했고, 내 의견 하나는 큰 책임으로 돌아왔지 때문이었다. 심적으로 정말 힘든 나날이었지만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환자 곁을 지키는 보호자도 힘들다 하지만, 정말로 가장 힘든 사람은 환자 본인임을 아니까. 지금 우리엄마가 가장 힘들테니까.



최고의 항암은 약이 아닌 사람들

조현우 경희의료원

문득 엄마가 보고 싶어질 때가 많아져 오프 때 당장 본가로 향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나니 병원 행사나 밖에서 병동 관련 일에 참석하기 힘들었다.(원래 난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 사유를 우리 병동 수 선생님께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의 내 상황을 말씀드렸다. 수 선생님은, 본인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마치 본인의 일인 듯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는 참아왔던 눈물을 처음으로 흘렸다. 한편으로는 기댈 곳이 생겨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 이내 병동 동료들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 놓았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안 좋은 감정을 터놓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어 표현을 숨기고 살아왔다. 하지만 슬픔을 나누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 병동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5월 8일 어버이날 전날, 이번에는 엄마가 먹고 싶어 하시던 대게를 사들고 가겠노라 결심하던 밤에 수 선생님께서 한통의 메시지가 왔다. 8분 남짓하던 동영상이었고, 썸네일은 수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 본관13층 사람들이 한명하명 엄마에게 힘을 전하는 위로를 해주는 영상이었다. 그전에 나는 동영상을 틀지 않아도 보자마자 목 놓아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영상 안에서 내 동료들 모두가 엄마를 응원해주고 있었다. 날 어려워했던 후배 간호사도, 장난만 치던 동갑내기 간호사도, 내 동기들도,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가 엄마에게 진심을 전하고 있었다. “넌 항상 혼자가 아니다. 같이 살아가는 나도 있고, 동료들도 있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마. 이 영상은 어버이날 선물로 어머니와 함께 보렴” 뒤 이은 수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난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다음날 어버이날에 우리 가족은 영상을 보며 그 전날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꼈다. 엄마가 말했다. 정말 치료를 잘 받아보겠노라고. 버텨보겠다고, 정말정말 오래 살거라고. 병동 사람들에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크기의 선물과 감동을 받았으니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이다. 엄마가 암 진단 받고 이렇게 희망차게 말하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이 순간을 이끌어 낸 것은 수백만원짜리 항암제도 아니었고, 마약성 진통제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이 만든 또 하나의 항암제였다. 이 항암제는 1회성이 아니라 평생 효과가 있는 항암제다. 우리 본관13층 사람들이 영상으로 만들어 낸 선물은 엄마의 마음속에서 희망을 주입하고 있다. 이만한 치료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만한 치료제를 만들어준 우리 수선생님과 모든 경희의료원 본관13층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사함을 전한다.

앞서 수선생님이 말씀 하셨듯이 난 생각을 바꿨다.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지 말자. 사람은 힘들 때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이다. 내 주변사람들을 생각 못한 채 내 자신을 내안에 가둬버리고, 해결 할 수 없는 망상에 빠져 들기 마련이다. 내가 운이 좋았던 건 사람들에게 말해야겠다는 단 한 번의 결심이 섰던 것이고, 이는 내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본관 13층에서 나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의 힘을 배웠고, 앞으로 이를 잘 써먹을 것이다. 글을 끝내면서 문득 생각이 든다. 살면서 고가의 항암제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낸 감정의 힘이야말로 가장 비싼 수가의 치료제가 아닐까.



버텨내야만 하는 전쟁, 그 전쟁이 끝날 날을 기다리며...

- 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

최수정 경희의료원

아침 7시, 나의 알람은 핸드폰도, 시계도 아니다.

나의 알람은 바로 사랑하는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다. 내게 뽀뽀를 하며 내 품속으로 파고든다. “엄마, 아침 해가 떴어. 일어나야지.”라고 나에게 속삭이면, 전날 이브닝의 여운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엄마의 힘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다.

어느 엄마처럼 폭풍 같은 등교 준비를 하고 9시에 등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마음 같아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버리고 이브닝 출근 전까지 쿨쿨 자고 싶지만, 그건 내 몸 하나만 건사할 때나 가능했던 일이다. 침대의 유혹을 이기고 빨래를 개고 널고, 청소기를 휘리릭 돌리고 내가 없을 저녁시간에 먹을 남편과 아이들의 저녁식사도 간단히 준비한다. 간혹 이브닝 출근할 때, 저녁식사가 준비하냐며 나에게 좀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동료들도 있지만, 내가 없으면 인스턴트로 저녁을 자주 때우는 남편과 아이들 건강 걱정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준비하려고 한다. 결국 나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들은 내 가족이기에…….

그리고 고백하자면, 출근 전 엄마의 업무 보다 출근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나를 더 괴롭힌다. 신규시절, 병원에 출근할 때에는 ‘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당했으면 좋겠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다쳐서 병원에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했었다. 멀리서 병원 이 보이기 시작하면 숨이 턱턱 막혔다. 병원에 입사한지 16년 차이

지만, 아직도 출근길은 괴롭다.

16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게 주어진 업무량은 내가 감당하

기에 너무 버겁다. 하지만 병동에서 고연차에 해당하기에, 내가 밝아 야 병동 분위기도 밝아지고 함께 의기투합해서 일할 수 있으니 으쌔 으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애써 콧노래를 흥얼거려본다.

병동에 출근하면 환자 파악부터 한다. 내게 최대 주어져질 수 있는 환자 수는 12명인데, 오늘은 11명이다. 11명이지만 추가로 퇴원을 할 수도 있고, 추가로 입원할 수도 있으니 오늘 내가 볼 환자가 11명이라고 확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내외과 통합병동인데 내과 환자들이 많고,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이 2명 정도 있어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환자 파악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다. ‘아, 오늘 퇴근은 할 수 있을까? 저녁은 먹을 수 있을까?’ 오늘도 저녁식사는 생략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에, 탈의실 캐비닛에 있던 위염 약을 하나 목에 털어 넣는다. 간호사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불규칙적인 식사 탓에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 공복 상태가 오래 되면 속이 쓰려 가슴까지 쏘여지는 고통을 자주 느낀다. 이젠 미리 미리 약을 먹는다. 아프지 않게 약도 미리 먹었고, 이번엔 정신 무장을 할 차례이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예전에는 환자 20명도 봤었잖아. 20명에 비하면 11명, 12명쯤이야.’

요즘 MZ 간호사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말이지만, 나 혼자 자주 되뇌는 말이다. 그래야만 이 현장을 버틸 수 있다.

오늘의 이브닝 근무도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환자의 혈압은 자꾸 떨어지고 소변은 잘 나오지 않는다. 다른 환자도 병실에서 High



flow(고유량 산소요법) 하고 있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산소수치가 떨어져 알람이 울려 여러 번 병실에 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만 했다. 이브닝근무 주어진 시간 안에 정규적인 업무도 해야 하는데 일이 자꾸 밀린다...

그 와중에 환자, 보호자들이 나를 계속 찾는다.

“선생님, 주사가 빠졌어요.” “선생님, 소변 줄에서 소변이 빨갛게 나와요.”

“간호사, 열이 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춥지?”

“간호사, 왼쪽 다리가 자꾸 막 움직여져. 이거 괜찮은 거야?”

“간호사, 여기 드레싱이 떨어졌어.” “선생님, 우리 엄마가 숨 쉬는 게 이상해요. 봐주세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날 찾기 시작한다.

“선생님, 이 처방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지금 넴라톤해야 하는데 인턴쌤이 계속 안 오는데 어떡하죠?”

“당직의가 진통제 처방을 해준다는데 아직도 처방이 안 났어요.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떡하죠?”

마치 여기가 전쟁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지만, 난 용케도 잘 피해 환자를 구하고 환자를 구하기 위해 같이 뒹굴고 있는 보호자도 구하고 함께 총알을 피하는 동료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 업무, 우수수 떨어지는 추가 처방, 환자, 보호자들의 요청을 하나씩, 아니 동시에 해결해 간다. 식사를 못 해 환자 앞에서 ‘꼬르륵’ 소리가 우렁차게 난다. 동시에 방광은 터질 것 같지만 나는

16년 차 간호사니까 이쯤은 참을 수 있다.

그렇게 오늘의 이브닝 근무도 어떻게든 버텨내어 퇴근할 수 있었다.

퇴근길. ‘오늘도 잘 버텨내었구나. 장하다.’ 나에게 애써 칭찬을 해보지만, 위중한 환자들에게 좀 더 신경 쓰느라 다른 환자들에게 소홀했던 건 아닐까? 일하면서 놓친 건 없을까? 칭찬은 인색하게 한 번으로 끝나고, 끊임없이 나에게 채찍질을 해본다.

온 마음을 다해 염원하던 간호법, 그 간호법을 대통령이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현실이 될 그날을 상상해 본다. 내게 주어진 환자가 5명이려면 나의 근무는 어땠을까? 5명으로 업무를 시작해도 입퇴원이 반복되면 5명이 넘는 환자를 보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일 것이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더 깊이 있게 간호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이 일하는 후배들에게 교육할 시간도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업무적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식사를 못 하거나, 5분 만에 식사를 마셔버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지긋지긋한 요로 감염과 위염, 허리 통증에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나의 건강을 되찾고, 같이 일하는 너의 건강도 되찾고, 환자들도 양질의 간호를 통해 건강을 빨리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람답게 일하고 싶다. 내 몸을 갈아서 일을 하는 건, 지금까지의 시간으로 충분하다. 오늘도 난 건강한 간호사의 삶을 꿈꾸며 힘들게 버텨 낼 내일의 전쟁 같은 근무를 위해 억지로 잠을 청해본다.



‘간호법’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

- 국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

홍원기 건국대학교병원

“홍간!!간호법이 뭔데 이렇게 시끌시끌해??”

홍간... 2001년 간호대생 때부터 초중고 동창인 동성 친구들 모임에서 나를 부르는 애칭이다. 2022년 연말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기사와 찬·반 갈등을 보고 궁금했었는데 찾아 보아도 자세히 알기 어려워 날 만난김에 궁금증을 해소해 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학병원에서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었을까? 나에게는 간호법이, 협회와 소속병원 간호부에서 그렇게나 열심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알아

보려는 의지도 열정도 그다지 없었으며 내 일로도 와 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솔직히 그 친구의 질문에도 포털 사이트를 잠깐 뒤진 얄은 지식으로 간단한 설명밖에 해주지 못했고 그 친구 또한 궁금증을 해소 못한 채 그날의 모임은 끝이 났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작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의료계와 무관한 동창 친구 녀석만큼의 관심도 없었던 내 자신이 참 초라하고 무책임하단 생각이 들었다. 전문직으로 내 직장 내 월급만 생각하고 간호사 생활을 해오던 것이 아닌가라는 죄책감이 들

있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간호법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 직종간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바라보던 무지했던 시선까지 대한간호협회의 홍보영상과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여러 의료직종의 전문가들의 글과 기사들을 보면서 느꼈다. 벌써...한참 전에 제정되었어야 하는 법안에 내가 이정도로 무관심 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놀라게 된 사실은 간호법 제정 논의는 최근이 아닌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법안 발의까지 협회와 많은 간호사 선배님들의 노력이 이어져 왔었다는 것이었고 이제야 결실을 맺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필요성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일제시대부터 70년간 의료법 안에 서만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병원에만 국한 되어있는 한계가 있어 실제 고령화가 세계최고 수준인 국내 상황과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 병원 이외의 보건소,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회사, 학교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 이외에는 규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말인 즉슨 업무나 역할의 경계가 없는 상황속에 의료인으로 의료 행위를 시행하고 있고 환자에게 어떤 직종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인중 가장 다수 이면서 말이다.

간호사 업무는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뚜렷한 법적 규정이 없는 현실은 평균 7년 만에 사직을 하고 면허 취득자중 절반만이 일하고 있는 현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일하는 간호사는 있고 간호법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2. 간호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하며
3.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를 하며
4. 처우개선 지침을 제정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5. 인권 침해 방지, 교육의무 부과하는

법안이, 70년간 한때 묶여 이어져온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간호법'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가까운 옆 나라인 일본만 해도 1948년에 간호법이 만들어 졌으며 미국, 유럽, 아프리카 OECD 국가 중 부끄럽게도 우리에게만 없는 법이기도 하다. 반대하는 정당이나 타 직종에서는 한 직군만의 이기적인 법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간호사의 개원 가능성이 생기고 의사없이 독립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으로 반대를 하지만 누구보다 의료인이 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개원은 상위법에서 막고 있으며 간호사에게는 처방권이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국 간호법의 제정은 간호사 한 직군만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수 많은 곳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역할과 경계를 명시하며 처우개선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인 간호인력 양성을 이루어 질병의 치료에서 지역사회 돌봄으로 변화해 가는 의료계의 현실과 마주친 상황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의 질적인 향상을 야기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적는 시점의 상황은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 했지만 반대하는 여당에서는 핵심으로 보이는 사항들을 제외하고 협상안을 제시 하였고 법안을 통과시킨 야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기사들이 올라오던 중 오늘은 우려되어 오던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발표되었다. 후보시절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치 보다는 맞서는 방식으로 정치 실종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금으로는 간호법의 향방을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대로 제정이 된다면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이로운 일이겠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게 되는 일이 현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무관심 했던 나조차도 이제는 대한간호협회와 긴 시간 노력해온 선배님들, 나보다 깨어 노력해 오던 후배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탬 것이다. 머지않아 간호법의 범주 안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결할 선배, 동료, 후배 간호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며

국민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

작은 노력, 큰 결과

김은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단



그 아이는 처음에는 그리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리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 나의 질문에 소리높여 대답을 잘 하는 아이도 아니었다. 밝게 웃으며 큰 소리로 인사를 하거나 애교를 떠는 아이도 아니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입안을 보려고 펜라이트로 비추었을 때 심하게 눈부셔하면서 고개를 돌렸던 정도가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 같다.

건강검진을 하던 어느 날, 사시검사를 하기 위해 펜라이트를 눈에 비추어야 했던 그때도 유난히 눈을 피하고 손으로 가리고 거부를 해서 하지 못했었다. 그래, 펜라이트 없이 눈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도 그 아이는 어느 곳을 보는지 모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교육을 할 때마다 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라 선생님께 살며시 물어봤다.

“선생님. ○○이가 평소에 선생님과 눈 맞춤을 잘 하나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이는 지금까지 저랑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눈 맞춤을 한 기억이 없고, 대답도 잘 안해요.”

눈 맞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니...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할 때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호가 눈 맞춤이라고 생각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들어왔다. 항상 나와 마주보고 앉아있지만 눈은 책상을 보고 있던 아이, “네네”라고 영혼 없이 대답을 하던 아이, 그 반에서 키가 제일 큰 아이, 눈이 옆으로 길고 유난히 작았던 아이. 생각해보니, 그 어린이집 역시도 괜히 짝해지는 그런 곳이었다. 광고에 나오는 이름도 멋진 아파트였지만 관리동에 있는 그 어린이집은, 바로 앞동 1층에 있는 어린이집과는 사뭇 비교되는 곳이었다. 빼격거리는 현관(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복도가 나오고, 왼쪽에 만 1-2세반, 오른쪽에 만 0세반이 있으며, 어두운 복도를 따라 쪽 들어가면 옛날 중국집에서나 볼직한 블라인드가 달려 있으며 그 곳이 화장실이었다. 화장실 역시 요즘 화장실과는 다르게 차가운 흰색 타일로 한기가 제법 느껴지는 곳이었다. 태어난 지 이제 길면 3-4년 된 아이들이 벌써부터 돈에 의해 환경이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참 서글프단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곳이었다.

시력검사 프로그램을 하던 그 날. 나는 그 아이를 눈 여겨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검사결과가 너무나 궁금했지만, 그 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제일 늦게 시력검사를 하게 되었다.

“○○아, 이견 뭐지?”, “.....”

“○○아, 이견?”, “.....”

오른쪽 눈을 가려도, 왼쪽 눈을 가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아이. 혹시나 싶어 그림들을 모르는지 다시 확인했는데, “물고기, 나비, 차, 오리, 비행기” 라면서 어느 때보다 큰 소리로 이야기 해 주었다. 다시 3미터 뒤로 물러서게 한 후 검사를 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

“○○아, 하나도 안보여?”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 아이는 그 동안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가 가져간 파일을 보면서도 대답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주눅이 잔뜩 든 표정으로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오른쪽 0개, 왼쪽 0개/ 안과검진 필요’ 라고 정성들여 쓴 나의 기록지가 엄마에게 잘 전해지겠지.





오늘은 아이들과 발달검사를 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날따라 스산하게 바람이 불었다. 손을 호호 불며 어린이집에 도착해 칭칭 감은 목도리를 푸르고 있자니, 수줍게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파란테의 안경을 쓰고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그 아이.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와!! ○○이가 안경을 썼구나! 와~ 우리 ○○이가 안경을 썼어! 이렇게 안경이 잘 어울리는 어린이는 처음 보는데...”

안경을 쓴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손을 꼭 잡아주었다. 시력검사 결과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병원에 간 그 아이의 엄마도 괜히 고마웠다.

“그날 검사 결과를 보고 바로 안과에 갔더니, 병원에서 눈이 많이 안 좋다고,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라고 했대요. 안경을 쓴 뒤로 ○○이가 많이 밝아졌고요. 대답도 잘하고, 행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아이는 그날, 적목 쌓기도 8개까지 쌓아 올렸고, 수직선도 진하고 똑바르게 여러 번 그었으며, 5개의 그림을 보면서 대답도 큰소리로 잘하고, 인형의 신체기관도 척척 말해 주었다. 넓이뛰기는 또 얼마나 멀리 뛰는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한 건 처음이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밝은 아이가 그 동안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웠을 생각을 하니 잠시 마음이 아렸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해결이 되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나의 방문간호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건, 그리고, 때론 어린이집 가는 일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었던 건 모두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과 선생님의 친절함 덕분이라. 나는 이 일이 참 자랑스럽다.

내가 교육한 내용을 잘 듣고 따라하며 엄마한테도 알려줘야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혈압/혈당 수치가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고맙다고 재차 말해주는 보육교직원을 보면서,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 우리에게 분명 좋은 일이 생길거야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신채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한겨울 새벽, 평소와 같이 출근 후 덩 덩히 입원 리스트를 살피던 중 눈에 띈 한 환자.

흔히 말하는 불타는 새벽이 눈에 선했다.

CPR, ECMO, CRRT, 모든 승압제를 최고 용량으로 쓰며 겨우 유지되는 혈압.

심질환 외에도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혀있었다.

서둘러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약물 조절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담당 교수님께 연락이 왔다.

“신 선생. 그 환자 옆을 지키며 바이탈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벤트가 있을 시 나와 바로 공유합시다.”

심장내과 전담간호사와 이식 코디네이터를 겸하고 있는 나에게 심장이식의 가능성이 있어 특별히 내려진 지령이었다.

내심 좋았다. 많은 환자를 봐오던 때에는 아쉬운 것들을 지나치곤 했다. 한 명의 중환자를 돌보면 속으로만 그려오던 이상적인 간호를 한 번 실현해 볼 수 있겠다는 가벼운 객기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전인 간호. 교수님은 매일 아침 전공의와 나를 교육했다.

온전히 한 환자에게 집중하니 모든 것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협력해 의견을 나눌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 의식이 있어 더욱 두렵고 힘들 환자를 위해 모든 처치를 설명하고, 혈액과 소독액이 묻은 얼굴과 몸을 씻기고, 손발톱을 깎고, 하얗게 갈라진 팔다리에 로션을 바르고, 관절 운동을 하고, 카테터를 소독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정성스레 간호했다.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딸과 아들은 거의 매일 병원에 왔고 낮선 공간에 서서히 적응해 갔다.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며 편지, 사진, 영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환자분께 희망과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자 했다.

교수님은 언제 자는 걸까. 주말, 새벽에도 전공의, 간호사와 계속 연락을 하고 외래와 초음파를 보다가도 틈만 나면

수시로 찾아왔다. 다른 과 교수님들과도 직접 소통하며 환자 치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런 모습은 나에게도 깨달음과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 다학제 치료를 거치며 병원에서 우리 환자를 모르는 진료과가 없었다. 모두가 기적이라며 최선을 다해 함께 치료에 협조했고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니 여러 고비가 있었고, 마지막 희망인 이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다. 긴 고심 끝에 환자의 평안한 임종을 위해 더 이상의 힘겨운 치료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호자와 면담을 마쳤다.

그날 영상통화에서 따님과 아드님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환자분은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엄마 보고 싶어? 월요일에는 꼭 집에 갈게. 울지 마”.

머리를 감겨드리는 나에게도 “선생님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요”라는 환자에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요?” 하고 웃었지만, 그럴 때마다 코끝이 시큰해졌다.

“따님이 방금 편지를 새로 가지고 오셨어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엄마, 월요일에 꼭 안 나와도 되니까..”

“...”

가슴이 뭉클 막히면서 목이 메고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오히려 환자분은 그런 나를 지긋이 바라보며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기적같이 최악의 상황이 또 한 번 지나갔다.

재잘재잘 바깥 이야기를 해드리고, 창가 너머로 꽃과 햇살도 보고, 가족과 영상통화도 하고. 그렇게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르니 기증자를 기다리던 환자도 지쳐갔다. 내색 없

이 옆에서 응원했지만, 다시 상태가 악화하는 기미가 보일쯤 함께 우울감에 빠져들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로하고 “곧 좋은 공여자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우리 결국 좋아질 거예요.” 하며 환자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교수님과 “엄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 우리에게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적힌 따님의 편지 문구를 가슴속에 되뇌며 힘을 얻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5월의 축복처럼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났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심장내과, 흉부외과, 신장내과, 외과 교수님들과 밤낮없이 소통하며 분투했다.

ECMO를 시작한 지 77일째 되던 날, 심장과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걱정하고 간절했던 만큼 수술방에서 교수님과 밤을 지새우고, 12시간이 넘는 대수술 동안 모두 함께 기도하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고 지금도 환자분은 열심히 회복 중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환자를 향한 우리 의료진의 노력과 열의가 유독 성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나의 배움과 노력, 열정이 한 가족을 지키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이 있을까?

이렇게 햇살 따사로운 오늘도 우리는 환자와 가족을 돌보며 함께 성장하며 단단해진다.

2019년 10월, 간호 학생 시절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간호 정책 선포식에 참석했다. 5만 여명이 '간호법 제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두 한마음으로 보건 의료 개혁을 외쳤다. 이 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 가본 적은 없었고, 그날의 큰 울림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다. 간호사가 된 지금, 2023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광화문을 다시 찾았다. 또 한 번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치며 다시 한 번 그날의 울림을 상기할 수 있었다. 신규 간호사로서 병원에서의 간호 업무 현실을 직면한 후 외치는 '간호법 제정'은 더욱 간절했다.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간호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생각한다. 현재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간호사는 많지만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매우 적다. 또한 임상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많은 것이 아닌, 실제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대부분 신규 간호사이다.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고, 경력 간호사가 그만둬서 부족한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대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도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 10명 이상, 더 많게는 30명까지의 환자를 한 명의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

환자들은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한 명의 간호사가 많은 환자를 담당하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현실을 널리 알려 많은 국민들이 간호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선배 간호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담당하는 환자가 많으니 해야 할 일도 많고, 환자들의 요구 사항도 많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하고 싶지만, 현실은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를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펼쳐진다고 했다.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병원에서는 대부분 여러 명의 신규가 한 번에 입사하게 된다. 동시에 트레이닝 받는 과정이 신규 간호사와 경력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정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항상 과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숙련된 간호 인력은 점차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항상 신규 간호사로 채워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신규 간호사는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고 거의 모든 업무에 바로 투입된다. 우리 역시 짧은 트레이닝 기간을 지나 바로 독립을 하게 되었다. 업무가 충분히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고 선배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신규 간호사가 입사를 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고 신규가 많을수록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환자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간호를 받게 된다.

학생 때 미국으로 실습을 나간 경험이 있다.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최대 5명이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간호사들은 정확한 투약 원칙 아래에 약물을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간호사는 한 명당 미국 간호사의 2배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시간에 쫓겨 약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정확한 환자를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한 사고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현재 간호사가 되어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호법은 제정되지 않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도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법 없이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환자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간호를 제공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루 빨리 간호법이 제정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종로1가에서부터 시청역까지 이어져 오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현장을 직접 담은 모습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황효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수요한마당(간호법집회) 에피소드



선한 영향력을 전하다

- 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

소중한 나, 같이 소중한 당신, 함께 소중한 우리를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한 서울성모병원 간호사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민유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빗 속에도 길을 잃지 않는 법, 간호법_비에 젖어도 꺼지지 않는 하얀 희망

-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

모성이 돌봄의 모태가 되어.. '생명에 희망을 심어주는 간호법의 품 안' 비에 젖어도 꺼지지 않는 하얀 희망_ 바로 간호법이 답입니다. 하늘은 오늘도 우리를 응원합니다.

안지민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비상하는 간호법!!

- 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

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허미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온가족이 함께 외치는 간호법 제정

- 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

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7살 아들의 "간호법 제정!, 간호법 제정!"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합니다.

허미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위한 길

-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

작고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삶의 시작부터 돌봄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기준과 규칙에 의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가 행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간호법 제정을 기원합니다.

양유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설 연휴 귀성객에게 '간호법 제정 필요성' 알리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오후 영등포역사에서 귀성객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배포했다. 귀성객에게 건강한 설 연휴를 기원하며 KF94 마스크와 간호법 제정 내용이 담긴 전단지도 함께 전달했다. 무료 마스크 겹면에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 주세요'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간호법 제정 전단지에는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유와 간호·돌봄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유를 담아 시민들에게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방문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박주민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 이규민 이사, 은평구간호사회 임원 4명,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영근 사무처장, 조현진 부장이 참석했다.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논의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올해안에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2023년 제1회 대표자회의

2023년 제1회 대표자회의를 2월 14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5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임원 29명(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구간호사회회장 등)과 본회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2022년 사업시행결과 및 결산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검토, 제76회 정기 대의원총회 임원후보자 수선거 선정이 있었다.

이어 2022년 구간호사회 대민사업 경진대회 공모전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간호법 제정 1인 시위에 꾸준히 동참해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1월~4월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작되어 전국 각지의 간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간호사회도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영등포구간호사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과 간담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속 영등포구간호사회는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 김민석 국회의원과 ‘약자의 눈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신홍식 구의원, 이예찬 구의원, 영등포구간호사회 최은주 회장, 임자영 총무 등 여의도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한강성심병원, 성애병원의 간호사 10명과 서울특별시간호사 조현진 부장, 김민희 과장이 참석했다.

관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2023년도 구간호사회 총회 개최

구간호사회총회가 2023년 1월부터 25개 구간호사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시행결과 및 결산보고와 202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수의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전해숙 국회의원과 간호정책 간담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전해숙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운수 회장, 광진구간호사회 회장,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영근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간호법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서초구간호사회, 국민의힘 박성중 국회의원과 간담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속 서초구간호사회는 4월 6일 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 박성중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간호법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중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서초구간호사회 김윤숙 회장, 기현영 총무, 정성희 회계와 김민경, 김민영 실행이사가 참석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제76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3월 16일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 볼룸에서 '간호백년 백년헌신' 주제로 제76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제40대 임원선거 및 2023년도 사업계획 안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제40대 회장으로 조윤수 서일대학교 외래교수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 박정선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간호부장이, 제2부회장에 전금숙 서울시 어

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단장이 각각 선출됐다.

조윤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신임 회장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5만 6천여 서울특별시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행복한 간호사, 인정받는 간호사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헌신의 힘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그외 당선이 확정된 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이사 = △김선만(중앙대병원 간호팀장) △김윤숙(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은주(세브란스병원 간호국장) △노영숙(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박경옥(서울시청 지방간호서기관) △심원희(서울대병원 간호과장) △윤지영(강남세브란스병원 수석부장) △이규민(청구성심병원 간호부장) △이혜영(서울아산병원 수석부장) △장혜정(삼성서울병원 외래팀장)

◇감사 = △이순규(前 강동성심병원 간호부장) △정남숙(서울시서북병원 간호부장)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장상 = △김도연(건국대병원) △서울특별시정신간호사회(단체수상)

◇대한간호협회장상 = △이미숙(베스티안서울병원)

◇공로상 = △곽도원(메디힐병원) △김계향(국립재활원) △김미영(前 삼성서울병원) △김선례(서울시보라매병원) △김선옥(국립정신건강센터) △박성희(강동경희대병원) △박영숙(前 서울특별시은평병원) △박혜경(국립재활원) △신미경(중앙보훈병원) △신현주(前 서울대병원) △조순옥(강서구보건소) △조진경(前 중앙대병원) △천자혜(세브란스병원) △현석경(이대목동병원)/ 이상 가나다순.

◇우수구간호사회상 = △구로구간호사회 △동대문구간호사회 △광진구간호사회 △영등포구간호사회 △은평구간호사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상 = △강은경(세브란스병원) △권현영(국립재활원) △김미경(서울성모병원) △김미정(경찰병원) △민정숙(홍익병원) △배정임(중앙보훈병원) △이화선(종로구보건소) △주민경(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모범간호사상 = △김미애(건국대병원) △김숙현(이대목동병원) △문경미(서울시어린이병원) △양순진(중앙보훈병원) △어정민(서울대병원) △이승희(한양대병원) △임수미(강남세브란스병원) △전선옥(서울시서북병원) △최희영(서울성모병원)/ 이상 가나다순.

◇감사패 전달 = △강동구가족센터(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단의 다문화가정 다국어 번역 업무에 적극 지원한 공로)

◇직원근속상 = △김경진(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장. 10년 근속)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서울시내 주요 역사에서 민트 캠페인 진행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서울시내 주요 역사를 방문하여 시민들에게 민트 캠페인 홍보물품과 전단지를 전달하고 간호법을 홍보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4월 8일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4월 18일	영등포역	4월 20일 청량리역
4월 22일	용산역	4월 23일 서울역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구로거리공원에서 민트캠페인 펼쳐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4월 13일 구로구 소재 거리공원에서 안전한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민트(min'T)캠페인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이날 민트캠페인 홍보에 참여한 한 시민은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 일상에서 간호사를 통한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응원과 지지를 전했다.



2023 여성마라톤대회

서울시와 여성신문사가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여성마라톤대회가 5월 6일 상암 월드컵 공원 내 평화 광장에서 4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본회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조기에 신청이 마감되었던 본 행사에는 총 189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행사를 즐겼다.



2023 구간호사회 실무자 협의회 개최

5월 26일 구간호사회 실무자 협의회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강당에서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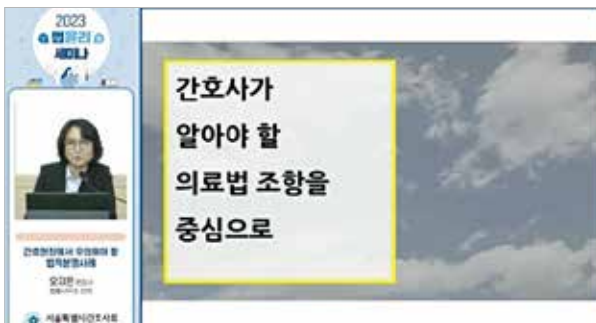
총 25개 구간호사회 총무, 회계, 서기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사업 소개와 구간호사회 사업일정, 회계작성지침 등에 대한 설명과 구간호사회 사업 진행 관련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023년 임원진 워크숍 개최

6월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운수 회장을 비롯하여 고문, 이사, 감사, 구간호사회 회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 35명이 참석하여 간호계 현안 공유 및 다양한 임상 현장의 의견과 함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발전 전략을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 법윤리세미나

법윤리세미나가 6월 21일 동시접속으로 22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웨비나로 개최됐다.

주제는 '간호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분쟁사례'로 간호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 조항을 중심으로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강의 후 수강자는 "간호실무와 기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2023년 간호계원로와의 간담회

6월 23일 '간호계원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호계원로 9명을 비롯하여 현 임원진 조운수 회장, 박정선 제1부회장, 전금숙 제2부회장,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올해 사업 진행 및 간호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시간호사회 소식



2023년 제1회 서울간호봉사단 간담회 개최

6월 29일 본회 3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서울간호봉사단 발대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규민 서울간호봉사단 위원장을 비롯하여 봉사단운영위원 3명 및 25명의 봉사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시간호사회 전금숙 제2부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 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뜻깊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봉사단원들은 서로를 소개하고 개인의 봉사활동경험을 공유한 후 봉사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특별시시간호사회



3초만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카오톡 열고 QR코드를 찍어보세요

* 채널 추가는 이렇게 하세요!



1. 카카오톡 실행
2. 상단 검색창 터치
3. 검색에서 **서울특별시시간호사회** 입력

1923

2023



서울특별시간호사회
Seoul Nurses Association



서울특별시간호사회
Seoul Nurses Association

*서울간호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원들이 만든 회원들의 매거진입니다. www.seoulnurse.or.kr